



멀리 또 가까이 ‘인천’을 보다

인천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입니다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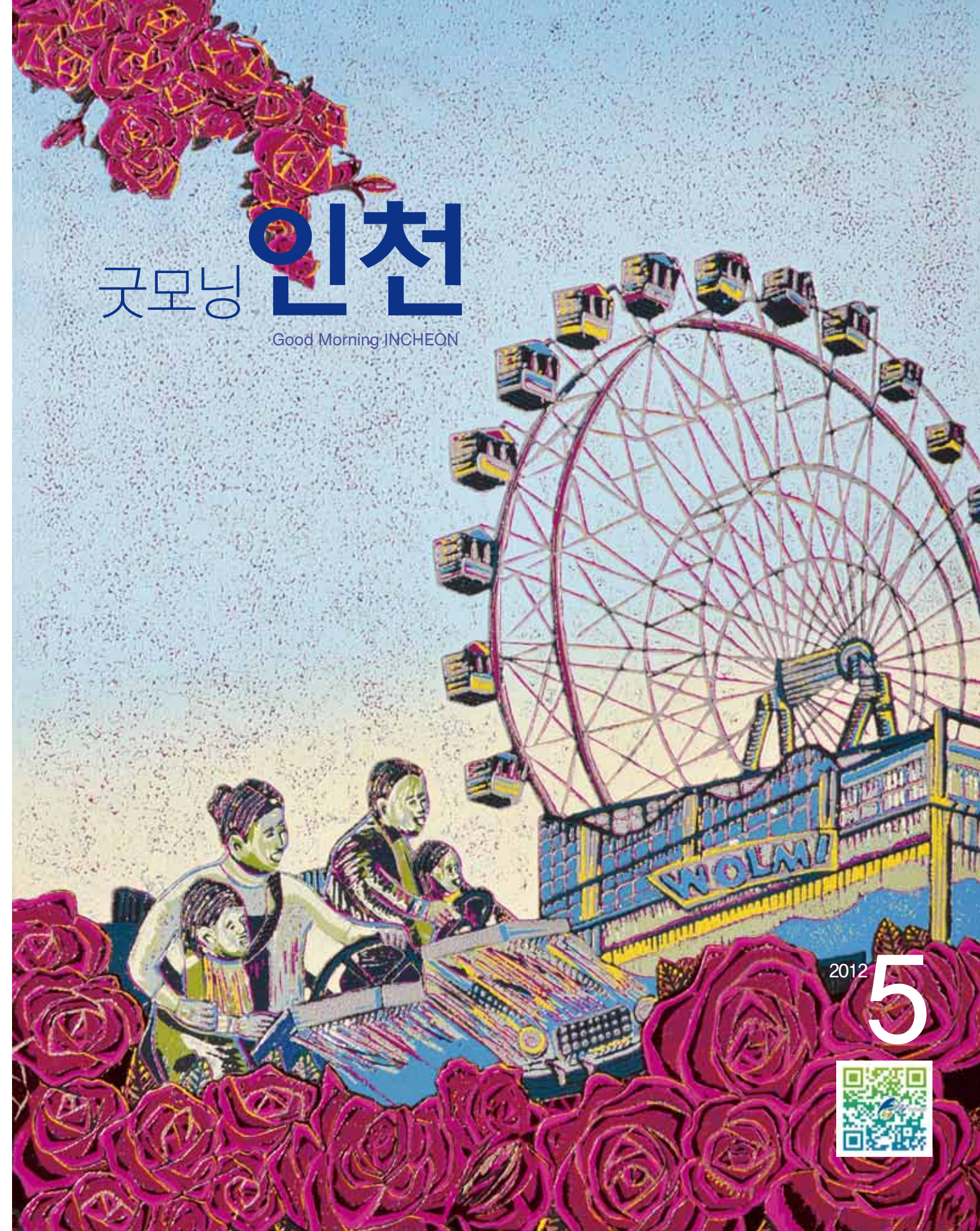
※ 위성에서 본 인천

부동산광장(imap.incheon.go.kr)에 가면
인천의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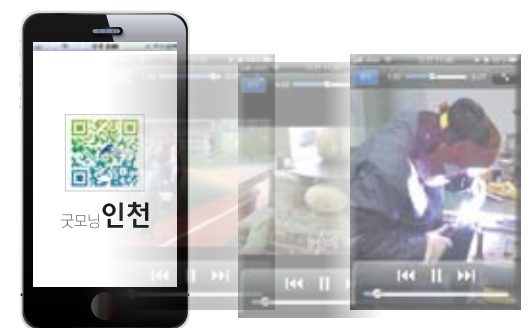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인천시미디어〉앱을, 태블릿 PC에서
 멀티미디어매거진 〈굿모닝인천〉을 다운로드 후 실행



06 Enjoy Incheon / 오월 축제
축제야 반갑다! 인천이 '들썩들썩'
 5월, 인천 전역은 잔치마당으로 흥겨워진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
 일을 축하하는 행사부터 찬란한 계절을 만끽하며 야외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축제까지, 시민과 함께할 잔치가 풍성하다.

14 가족 나들이 / 월미도
와 봤다고요? 다시 와도 또 반할걸요
 5월이다. 봄바람이 향기롭다. 꽃향 품은 바람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깊
 속이 들어온다.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어디로든 길을 나서고 싶다.

18 포커스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전
GCF, 송도에 둥지 틀고 지구를 구하라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못지않은 큰 건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전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는 정치·외교적 측면
 에서 국격 및 도시브랜드 상승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룰 것이다.

Contents

04 **Communication** '희망도시 인천의 미래를 믿어' 외

06 **Enjoy Incheon** 오월 축제

10 **가족 나들이** 월미도

16 **포커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전

18 **2014 AG · 하나 되는 아시아** 싱가포르

22 **시정토크 앱** JST(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

26 **Zoom In** 실비 결혼식장

28 **오월, 또 다른 풍경** 골목

30 **Expo** 2012 여수세계박람회

34 **아름다운 사람** 인천 고아들의 대부 서재송 옹

36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 외

40 **별난 물건, 별난 역사** 문구 이야기

42 **Civic News** 인천 '재정위기' 극복할 수 있다 외

46 **Council News** '학생 모의의회 열어' 외

48 **2014 AG** 청년서포터즈 활동

49 **한방칼럼** 봄, 고양이처럼 게슴츠레 눈이 감기나요?

50 **Info box**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 외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6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57 **인천사는 이야기** '한국 속 작은 중국으로~' 외

58 **모닝커피 한잔** '봄꽃' 닦은 인천, 뷰티도시 되기

59 **인천풍경 플러스** 미안하다, 네가 지는 줄도 몰랐다



Cover Story

인천의 시화(市花) 장미꽃이 가득 핀 월미
 도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유성목판화(소멸기법)로
 표현했다.

판화 · 김경배 作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희망도시 인천의 미래를 믿어

시장님이 직책수당을 반납해 시 살림에 보태고 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인천 재정상태의 심각성이 전해져 안타까웠지만,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재정난을 극복하자는 의도는 좋게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도 수당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이 업무의욕 저하로 이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천은 희망이 있는 도시이니,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요! 인천 파이팅!

_ 이현희 남동구 구월남로

차이나타운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굿모닝인천〉4월호에서 차이나타운을 보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차이나타운에서 참으로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요. 졸업 후에는 인천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굿모닝인천〉에서 추억 속 공간을 접하니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차이나타운을 찾아야겠습니다.

_ 박경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인천

〈굿모닝인천〉을 구독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보아도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흥미 있게 보는 기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이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웃고 슬퍼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들을 더 많이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시민과 하나되는 〈굿모닝인천〉 항상 믿고 지지합니다.

_ 김상진 계양구 길마로

인천의 명산을 아시나요?

〈굿모닝 인천〉4월호에 나온 ‘꽃놀이 명소’를 보니 집에만 있기에 아쉬운 봄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천에 살고는 있지만, 막상 등산을 하려면 인천에 있는 산에 대해 잘 몰라서 망설여지지 않나요? 잘 찾아보면 인천에도 마니산, 계양산, 문학산, 고려산 등 명산이 참 많답니다. 좋은 날 가족과 함께 인천의 명산에서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_ 이규호 계양구 봉오대로

직장생활 15년째, 고향 같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의정부시민입니다. 부평구로 출퇴근한 지 언 15년이 되거나, 이제 인천이 내 고향인 듯 정겹습니다. 오늘 업무 차 부평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접했습니다. 인천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활 속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보며 ‘왜 진작 이 책을 알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굿모닝인천〉을 보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_ 조 석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인천 공감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은 삭막한 일상 속의 휴식처입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사람으로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집실에서 숨겨진 인천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굿모닝인천〉이기에 가능한 인천의 이야기 기대할게요.

_ 박윤호 서구 원당대로

인천에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굿모닝인천〉4월호에 인천의 어린이 과학관과 전시관이 소개되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인천에 이렇듯 보석 같은 공간이 많다니, 시민으로서 뿌듯하네요. 더불어 짜장면 박물관 개관소식도 반갑게 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짜장면을 판 역사적인 공간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여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춘장을 볶아 온 분들의 이야기도 가슴 뭉클하게 전해졌습니다. 따스한 봄날, 온 가족이 함께 차이나타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새기려 합니다. 시민에 늘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어 고맙습니다.

_ 차유리 연수구 새말로

짜장면집에서 가족의 사랑이 솔솔

〈굿모닝인천〉4월호 중에서 짜장면박물관 개관에 맞춘 특집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에는 ‘추억의 별미’를 먹으러 아이들과 짜장면 집에 가야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자면, 요즘 흡연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니 시에서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_ 김시운 동구 배송로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Bulloger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을 줄곧 응원해 왔는데, 시장님 앞으로 인천은 어떻게 되나요?

2014 인천아시아경대회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상황이 잠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산위기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재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lloger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통행료 징수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통행료 부과철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인천도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안 되나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바 있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주에 따른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는 현재 부평구와 남구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해 발효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Bulloger 부평역에서 농협 로터리 양방향 보도블록 위 상습 주차를 단속해주세요. 불법주차로 보도블록을 파괴하고 시민의 통행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상기 구간은 부평구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단속은 도로 위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하기에 동 구간에 주차한 차량 중 차도와 인도가 아닌 개인사유지 내 주차한 행위는 단속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유은미(당시 만 34세, 여)
발생일자 2004년 6월 22일(화)
발생장소 부평구 청천2동
신체특징 정신장애 2급,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력 있음. 피부색이 흰 편, 통통한 편. 검은 슬리퍼를 신고 백가방을 들고 나감.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축제야 반갑다! 인천이 '들썩 들썩'

매년 5월, 인천 전역은 잔치마당으로 흥겨워진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부터 찬란한 계절을 만끽하며 야외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축제까지, 시민과 함께할 잔치가 풍성하다. 재미로 고르고 세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에 참가해보자.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가족간의 사랑, 이웃간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란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어린이 날 행사

5월 5일은 어린이가 웃는 날이다. 인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펼쳐진다. 5만여 어린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난 놀이로 행사를 꾸몄다.

행사는 다문화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로 시작한다. 어린이 인형극 '효행이와 호랑이 선생님'은 요즘 잊혀져가는 효의 정신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볼만한 인천관광지와 특산품을 인형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코너다.

즐거움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신나는 에어바운스, 비누방울놀이, 고리던지기, 굴렁쇠굴리기, 가족줄넘기, 태권도시범, 전통놀이, 제기, 버블매직, 응급의로 및 119구조대 소방 체험이 준비되어 아이들이 활짝 웃는 하루가 된다.

소중한 체험으로 하루가 뜻깊은 행사도 열린다. 풍선아트, 바람개비, 페이스페인팅, 핸드폰, 초콜릿 리본공예, 천연허브비누 만들기, 전통나래연 만들기, 염서쓰기, 퓨전타악체험, 인천사랑 대형그림 그리기, 가족티셔츠 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쁜 추억을 만들어줄 행사가 가득하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82



화도진 축제

화도진은 조선말기 서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군영이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다. 화도진축제는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열려 올해로 23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화도진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화도진을 춤추게 하라’다.

화도진축제의 주행사는 뭉니뭉니해도 어성대장 축성행렬이다. 전통옷을 입는 취타대 30명과 군악대를 포함한 해병대 의장대, 군인 100여 명 등 2백20명이 참여해 동구청 앞을 시작으로 화도진공원까지 약 2.5km를 행렬한다. 어영대장 축성행렬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재현하는 행사로 축제의 백미다.

또 올해는 한·미수교 130주년을 맞는 해여서 행사가 더욱 풍성하다. 5월 4일 화수2동 풍물단 ‘화수부두 경사났네’ 공연을 비롯해 통기타 가수 음악회, 화도진을 춤추게 하라. 타악퍼포먼스 등의 신명나는 공연을 진행한다. 문의 : 770-6102

인천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제

올해부터는 아시아이주민축제가 인천 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제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인천에서 하나되는 아시아를 표현했다. 아시아의 이주민이 아닌 ‘한울타리’ 축제는 5월 13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인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모여 흥겨운 장이 펼쳐진다. 문의 : 440-4274

배다리문화축전

인천의 옛 추억과 풍경을 간직한 배다리. 추억의 공간이 이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빗바랜 책을 들춰보며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는 헌책방거리. 지하 공예상가에는 인천지역 공예 작가들의 다양하고 예쁜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배다리문화축전은 화도진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5월 12~13일 우각로 스페이스 빔 앞에서 열리고 배다리 포럼, 인디밴드 공연, 책나눔 행사를 갖는다. 문의 : 422-8630



황해도평산소놀이굿 공연

황해도 평산지방에서 내려오는 놀음굿. 농사나 사업, 장사의 번영을 빌거나 자손의 번창을 비는 경사(慶事) 곳이다. 온 마을이 축제분위가 되어 굿을 통해 마을의 협동과 화합을 다지고 개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황해도평산소놀이굿은 5월 6일 화도진공원 내사마당에서 공연한다. 문의 : 770-6102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화고인돌. 민족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랑스런 문화자산이다. 일찍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강화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강화고인돌이 축제의 중심으로 살아난다. 축제는 5월 5일~6일, 하점면 부근 고인돌 광장 인근에서 옛 구석기인들의 삶과 생활을 체험하는 행사로 펼쳐진다.

체험행사 중 가장 큰 재미는 고인돌 원시체험교실이다. 아이들이나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옛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석기, 토기, 움집을 만들어 본다. 여기에서 원시인 복장체험, 고인돌 포토존, 고인돌 생활체험, 동물뼈 타악연주, 모형고인돌 만들기 등 역사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원시인들이 했을 법한 놀이들로 구성된 고인돌올림픽도 열린다. 원시투호, 불피우기, 사냥대회, 고인돌벽화그리기 등 단 하루만이라도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재미에 빠진다.

문의 : 930-3623



에코 그린바이크 페스티벌

5월 연수구는 자전거 도시가 된다. 자전거 마니아는 물론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자전거 향연을 펼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에코 그린 바이크 페스티벌(Eco Green Bike Festival)’은 두 바퀴로 송도 구석구석을 보고 느끼며 인천을 알아가는 행사다. 축제는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5km를 달리는 연수자전거퍼레이드, 빌딩숲과 바닷길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40km 로드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인천송도래리. 유치원생과 가족이 함께 왁자지껄 즐기는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로 구성했다.

행사는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인천송도래리(자전거대회)는 1천명이 참여하고, 참가비는 3만원이다. 연수자전거퍼레이드,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는 무료다. 문의 : 872-9000

※ 5월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본지 53p 참조



오월나들이 표지판
월미도 010-2020-0000
월미도 010-2020-0000



화뽕다고요?

다시 화도 또 반할걸요

5월이다. 봄바람이 향기롭다. 꽃향 품은 바람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어디로든 길을 나서고 싶다. 엄마와 아빠에게 나들이 가자고 졸라야겠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내가 집에 가만히 있기엔 5월은 너무 눈부시다. 게다가 이달엔 어린이날이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팔짱 끼고 무조건 고고 씩 ~

글 · 사진. 김민영_자유기고가

조선시대 양반과 만나다

월미도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집들이 보인다. 초가집과 기와집. 조선시대의 집들이다. 책에서만 보던 집들이 눈앞에 있다. 연못도 있고 근사한 정자도 보인다. 이곳은 월미전통공원이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서민의 집 그리고 정원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다.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도시락을 펼쳐놓고 즐겁게 점심을 먹기도 한다. 오래된 집들 사이로 논과 밭이 보인다. 밭에는 배추와 무, 고추 등을 심어 키우고 논에는 모를 심어 가을에 추수도 한단다. 초가집 옆으로 땅이 푸르다. 싹이 튼 보리밭이다. “보리는 꼭꼭 밟아 줘야하는 데... 그래야 건강한 보리가 된다”고 아빠가 설명한다. 난 보리밥을 거의 먹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엄마와 아빠는 보리밥에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맛나다고 하신다.

‘양진당’이라는 현판이 달린 조선시대 양반집 마당에서는 쿵쿵 하늘로 튀어 오르는 널도 뛰고 인절미 떡도 만들고 나무 팽이 만들기 체험이 있다. 나도 인절미 떡을 맛보기위해 찰밥을 곱게 다지는 떡메를 들었다. 생각보다 무겁다. 힘 한번 쓰고 맛보는 인절미가 쫄쫄득득 꿀맛이다.



전통의상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안채 마루로 오른다. TV에서나 보던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화려한 옷들이 사람들을 웃게 한다. 나는 키가 작아 임금의 옷을 입어보지는 못 했다. 어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 “걱정 마. 너 커서 결혼 할 때 입을 수 있어. 근데 언제 크 나...”라며 엄마는 웃으신다.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린다. 신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공원 안 제물포 마당에서 ‘필그 림 앙상블’이 공연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월미산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노래와 연주에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가족도 잠시 그들의 공연에 흠뻑 빠졌다.



바다를 지킨 우리 해군

긴 담장을 따라 월미전통공원 밖으로 나왔다. 돌로 높게 담을 쌓아 놓은 성곽을 오르니 ‘해군정보부대 충훈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있다. 충훈탑?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 작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탑”이라고 아빠는 설명하신다. 아 빠는 ‘해군 제2함대 주둔기념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월미도 앞 바다를 지키던 해군 제2함대는 1946년 처음 이곳에 창설됐고 그 기념으로 세워진 거지. 제2 함대는 지금 이 곳에 없어. 1999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됐지.”

어? 커다란 배가 태극기를 달고 공원 옆에 있다. 배 주변으로 분수가 물줄기를 쏘아댄 다. 물소리가 시원하다. 꼬마들이 뛰어 다니고 어른들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는다. 놀 이터 같다. 이곳은 그린비치. 인천상륙작전 당시 첫 상륙지점을 기념한 곳이다. 아빠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설명하신다. “레드비치, 블루비치 등 3개 상륙지점을 정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했고 결국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구했지.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 전 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계속해서 바다가 시끄러우니 말이야...”. 나도 뉴스에서 천안 함이 침몰되고 연평도가 폭격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범 등 타고 정상으로

“가위, 바위, 보...” 월미도 길은 동그라미처럼 돼 있다. 어느 쪽으로 돌든지 다시 만난다. 어디부터 시작해 돌아볼 지를 정하려는 데 물범 한 마리가 느릿 다가온다. 귀여운 물범 그림을 한 셔틀가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코트인 백령도 물범을 모델로 한 ‘물범가’다. 우리는 물범의 등을 올라타고 월미산 둘레길을 돌아 산 정상에 오르기로 했 다. 속도는 빠르지 않다. 내가 뛰는 속도 좀 될까? 살랑 살랑 바람을 맞으며 쉽게 정상에 올라왔다. 바다가 보인다. 섬들이 바다를 감싸고 있다. 바닷 바람이 코끝을 간질인다.



예포대로 발길을 옮겼다. 오래된 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얼른 그 위로 올라가 사진 한 장 찍었다. 어휴... 눈이 부시다. 그런데 엄마는 자꾸 웃으라니 어찌라고... 그 곳 건너편에서 보이는 투명한 유리의 월미전망대는 아이스크림 혹은 핫불같다. 사람 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다 보인다. 우리도 서둘러 전망대에 올랐다. ‘와우! 인천이 이런 모 습이었다니...’ 발 밑에 보이는 항구의 모습이 재밌다. 커다란 배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온다. 아빠는 그게 ‘갑문’이라고 설명한다. 큰배 옆으로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다. 수 출되는 차들인데 마치 장난감 차처럼 작게 보인다.

월미전망대를 지나 나무 계단과 둘레길을 따라 걸었다. 이름도 모르는 아주 조그마한 꽃 들이 피어 있다. 야생화라고 한다. 이곳은 야생화가 많은가 보다. 곳곳에 세워진 안내판 이 꽃과 나무를 설명해 주고 월미도의 역사도 이야기한다. 월미산은 60년 동안 군부대 가 있던 곳이라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잘 보존된 공원이라 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무도 키가 크고 우람하다.



이민 떠나는 게 슬펐대요

둘레길 따라 월미전통공원 반대편으로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벌써 5시다. 집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시간이 빠른 것 같다. 놀이기구가 언뜻 보인다. 조용한 월미산과는 다르게 시끌시끌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엄마는 시계를 보더니 이민사박물관부터 가자신다. ‘나는 놀이공원부터 가고 싶은데…’ 조금 더 크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자고 해야지.

이민사박물관부터 가자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0분 전에는 와야 한단다. 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사람들이 이민을 떠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에 건립되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갔지만 그 옛날에는 비행기는 꿈도 못 꿔고 그나마 큰 배도 많지 않았어.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가 바로 월미도 앞바다였단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민사박물관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야.” 우리 아빠는 참 똑똑하다. 아빠가 되면 다 똑똑해지는 걸까? 전시장에는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들이 모형과 그림으로 표현돼 있다.

저 낡은 가방을 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좋아서 이민을 간 사람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일 하러 간 사람들은 울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다니… 나는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낡은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을 보니 왠지 슬프다.

타고 돌고… 까르르르

야호~ 이제 놀이공원이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있는 놀이공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먼저 엄마를 졸라 떡볶이와 어묵을 먹었다.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일까. 배를 채우고 나니 사람들이 제대로 보인다. 거리의 화가가 모델이 된 사람들의 얼굴을 쓱쓱 그린다. 신기할 만큼 쉽게 그리고 모델보다 더 예쁘게 그린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 엄마는 누가 들을까 조심해서 말한다. 여자들이란… 참.

“없어졌네…” 아쉬운 듯 아빠가 말씀하신다. “뭐가?” 엄마가 궁금하다. “아… 우리 데이트 할 때 있었던 카페… 이름이 뭐지? 아 왜. 이수만씨가 운영하던 곳… 미국에서 돌아와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잖아. 옥상에는 큰 배가 있었고…” “아… 헤밍웨이. 그래. 없네…” “아들! 소녀시대 있지? 그 소녀시대를 키운 소속사 대표 말하는 거야.” 그 아저씨는 월미도에서 커피장사하며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어머… 저게 뭐야? 언제 생겼자…” 엄마의 걸음이 빨라진다. 해안가에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작은 공간으로 간다. 친수공원이란다. 바다로 내려 갈 수 없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거리를 좁힌 곳이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멀리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 유람선이다. 월미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도 가고 팔미도도 갈 수 있다고 한다.

내 귀에는 사람들의 환호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분명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소리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다. 엄마도 알아차린 듯 “알았다.” 하신다.

역시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바이킹’과 ‘크레이지 크라운’도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타가다’ 놀이기구는 쿵쿵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도르르 미끄러진다. 회

전목마와 꼬마기차에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웃는다. 범퍼카를 타고 쾅쾅 부딪쳐 보고도 싶고 풍차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고도 싶다. 아니다. 의자에 앉아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하이퍼드롭’을 타보자.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에버랜드보다 더 신난다.

집에서도 가깝고 내가 사는 인천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월미도로 나들이 나오길 잘 한 것 같다.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좀더 놀다 가자고 해야겠다. 아직 하늘의 빛이 남아 있다.



예나 지나 월미도 꽃구경

일제의 철도국은 1920년 경인선에 임시 ‘화열차(花列車)’를 운행했다. 그만큼 월미도 벚꽃놀이는 당시 최고의 이벤트였다. 1922년 아예 육지와 월미도를 잇는 독길을 만들고 월미도를 국내 최대의 임해 유원지로 만들어 나갔다. 야외 캠핑장, 해수욕장, 식물원, 운동장, 사슴 사육장 같은 위락시설과 함께 해수 풀장과 조탕(潮湯)을 개장했다.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해수욕,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건강욕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무렵 조선팔도 백성들의 소박한 꿈은 단 하루라도 월미도에 가 호사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 후 월미도는 해변가에 대형 풀이 증설되고, 밀물 때 마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설계한 용궁각(龍宮閣)이라는 일본식 요정도 생겨났다. 1935년 무렵에는 3층 목조 건물인 빈(濱)호텔이 건립되어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들었다. 월미도는 경인도시의 ‘오아시스’, ‘해상낙원의 극치’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위락시설은 인천상륙작전 중에 완전히 소실되었고 월미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초토화되어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1974년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초현대식 갑문을 설치하면서 완전히 육지와 연결되었다. 반세기 동안 월미산은 군사기지로 엄격한 통제·제한구역이 되었다가 2001년 관광특구 지정과 맞물려 월미산 개방이 이루어졌다.





GCF, 송도에 등지 틀고 지구를 구하라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못지않은 ‘큰 건’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전이다. 기존의 어떤 유엔기구보다도 상징적인 GCF 사무국 유치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국격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우리시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독일, 스위스 등과 경쟁

우리시는 ‘환경부문의 세계은행’이라 일컫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전에 나섰다. 최근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GCF 사무국 유치신청서’를 독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 GCF 임시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유치전에는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

이 뛰어들었다.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치 도시가 판가를 난다. GCF는 연간 115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 역할을 맡는 국제기구다.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해 개도국의 산림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활동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공식 사무국이 설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93개국 정부대표단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남아공 더반 총회에서 당사국 중 처음으로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금 출범을 위해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우리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유엔 GCF 사무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우리시는 GCF 사무국이 올해 9월 완공예정인 송도국제도시의 아이타워(지하 2층·지상 33층) 중 15개 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정부도 GCF 운영 비용으로 올해 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국내에 GCF 사무국이 유치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을 신청서에 담았다. 또 개발도상국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천만 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1천900억원

GCF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되면 엄청난 지역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21회 열리는 GCF 관련 각종 회의에 따른 컨벤션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촉진, 녹색기술산업 발전 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인천이 국내 국제기구의 상징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20년 GCF 사무국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송도에 근무하는 상주 직원 규모는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면 인천의 위상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는 이런 기대감을 한단계 더 뛰어 넘는다. KDI는 GCF 사무국이 국내에 유치될 경우, 총 소비지출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까지 포함하는 기대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연간 3천812억3천만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 9월에 완공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

GCF 유치에 따른 연간 인천지역경제 효과 추정

지역경제 효과 항목	규모(억원)	비 고
국제회의	1,242	해외 및 국내 참가자
GCF 직원들의 소비지출	325	500명 직원 평균연봉 1억 3천만 원 지역 소비는 연봉의 50% 반영
GCF 가구의 지역소비	50	직원 당 1천만 원
유관기관 직원들의 지역소비	250	50개 기관 기관 당 직원수 10명. 평균연봉 1억원 지역소비는연봉의 50% 반영
유관기관의 지역소비	50	직원 당 1천만 원
합계	1,917	

자료=인천발전연구원





다양한 빛깔로 이뤄진 모자이크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2010년 '갤럽' 조사에 의해 지구촌 모든 나라의 이민장벽이 없어질 경우, 이주하고 싶은 나라 1위에 선정됐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소 과한 '규제'가 통치의 수단이긴 하지만 세계인들은 다양성의 매력에 빠져 싱가포르에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이 총 320개의 비늘로 덮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색채가 싱가포르를 덮고 있다.

글 ·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싱가포르 풍경

다국적 기업의 천국

13세기 수마트라의 왕자가 낚신 땅을 찾았다. 그곳에서 한 동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사자로 오해해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Singa Pura)'라고 불렀다. 이런 연유로 그 땅은 '싱가포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는 곳마다 사자 모양을 한 조각상을 만나게 된다. 상반신은 라이온,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한 '머라이언(Merlion)'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코스의 하나인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만 끝 쪽에는 높이

8m의 순백 머라이언이 힘차게 물을 토해내고 있다.

200년 전 만해도 싱가포르는 몇 척의 배가 닿던 조그만 어촌이었다. 중국에서 차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던 영국은 19세기 초반 이곳을 중계무역 거점으로 삼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 중국과 인도에서 노무자들이 건너오기 시작했고 인구는 몇 년 새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 자원도 없고 물마저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어야 할 정도의 악조건 속에 있던 싱가포르는 생존을 위해 1960년대 초 말레이시아연방에 가입한다.

그러나 인종갈등으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1965년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탈퇴해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싱가포르가 택한 길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였다. 아무 자원이 없었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을 끌어들이 수밖에 없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천국이다. 약 7천개의 다국적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도 대개 이곳에 있다. 외국 의 우수 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 싱가포르 도심공원
2 싱가포르-덕투어
3 클락키의 야경
4 언더워터월드
5 인공해변 센토사
6 시내풍경



외국인이 연구원이나 교수 등으로 싱가포르에서 3~6년 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한 녹색비자(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대학의 메카로 우뚝서고 있다.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를 시작으로 듀크대, 코넬대, 매사추세츠공과대,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존스홉킨스대 등 10여 개교 미국 명문대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다. 거주자 5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라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줄이 내국인의 줄보다 훨씬 긴 진풍경이 벌어진다.

사람 손으로 만든 섬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센토사 섬이다. 비좁은 영토를 최대한 이용한 인공섬으로 그곳에는 인공으로 된 해변과 바위섬이 있다. '아시아 최고의 놀이터' 센토사섬은 동서 4km 남북 1.4km다. 언뜻 수치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본섬 등 싱가포르의 60여 개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우거진 열대 우림과 황금 모래사장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초호화 리조트 시설과 유명 챔피언십 골프코스까지 갖췄다. 차와 배를 이용해 섬으로 갈 수 있지만 여행자들은 케이블카를 주로 이용한

다. 2km에 약간 못 미치는 공중 길 여행에서 싱가포르 남쪽의 전경과 인도네시아의 바탐이 눈에 들어온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 혹은 '평온'을 뜻한다. 젊은이들은 열대지방 날씨 속에 드넓은 인공 해변에서 한가롭게 공놀이를 하거나 야자수 아래에서 책을 읽는 등 다양한 풍경을 연출한다. '평온'이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치열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워낙 나라가 작다보니 그 어디에 묵든 다른 지역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센토사 리조트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10분 만에 육지에 도착하며 여기서 지하철을 이용해 싱가포르의 명동과 같은 '오치드 로드'나 유명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 등에 넉넉잡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약 6백종, 8천마리 이상의 새들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주룽새 공원은 싱가포르의 색채를 보여주는 요소 중의 하나. 적도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을 위하여 매일 정오에는 스쿨과 같은 환경까지 재현하고 있다. 얼음물 속에서 수영하는 펭귄과 30m 짜리 인공폭포 구경은 덩이다. 야간에만 개장하는 동물원에서는 야행성 맹수들이 눈을 부라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가는 고압선을 사이에 두고 코앞에서 볼 수 있다.

'음식 백화점'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곳곳에 기분 좋은 풍경이 펼쳐진다. 넓고 시원하게 뿔린 도로, 하늘 높이 치솟은 아름다운 고층 빌딩들, 선선한 바닷바람을 쐬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해변카페,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은 거리를 걷노라면 신성한 기운조차 느끼게 된다. 싱가포르의 밤은 다양한 빛깔로 이뤄진 모자이크다. 그곳의 밤은 과하지 않게 화려하다. 싱가포르 강변을 따라 분위기 있는 노천카페와 고급 레스토랑, 언제나 흥겨움이 넘쳐나는 라이브 바, 그리고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펍들이 늘어서 있다. 강변의 대표적인 명소는 클락키이다. 싱가포르의 두 번째 영국인 총독이었던 앤드루 클라크의 이름을 딴 곳이다. 클라크키는 중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럽과 싱가포르의 상인들이 꽤 오랫동안 어울려 생활한 곳이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번성한 싱가포르의 자부심을 접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음식 백화점'이라 불린다. 외국인들의 국적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외식을 즐기는 식문화가

더해져 식도락 천국을 이룬다. 시내 곳곳에서 태국, 일본, 이태리,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음식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꼬치요리나 치킨 라이스 등을 향시 먹을 수 있는 노천 식당과 카페가 널려 있다. 적어도 음식 때문에 '홈씨크'를 겪을 일은 없다.



▲ 안표진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 이경선 블롬메이드 대표



▲ 이우기 인하대 산학협력본부장



▲ 김종윤 JST 창업기반부 부장



▲ 오지환 건포도소프트 대표

제2 벤처 돌풍, 인천이 ‘익’낸다

인천이 창업메카로 떠올랐다. 고용률 꼴찌라는 불명예를 털고 청년이 창업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도전과 열정’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는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JST(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을 펼치고 있다. 작년 5월에 시작해 올해로 1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109명이 창업해 인천에 제2의 벤처창업 기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청년창업의 새 물꼬를 트고 있는 JST(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년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 아쉬운 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토론참석자〉

이우기 인하대 산학협력본부장, 이경선 블롬메이드 대표, 오지환 건포도소프트 대표,
김종윤 JST본부 창업기반부 부장, 안표진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창업지원팀



인천에서 JST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김종윤 대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JST사업입니다. JST사업이 제2의 벤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JST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안표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조기발주를 강조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벤처지원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중앙이나 지자체에서도 각기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2의 벤처창업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이우기 우리경제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대기업이 받은 경제혜택이 청년 고용이나 중소기업으로 까지 내려가지 않는게 문제지요. 자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부흥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50세면 나와야 하고, 수명 100세 시대에 남은 삶을 준비 해야 합니다. 창업은 국가를 튼튼히 하고, 개인의 삶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일어나면 잘 됩니다. 창업도 그중에 하나지요.

이경선 우리회사는 10, 5, 1, 1/6 마력급의 공기압축기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6월 창업했고, 10월 제품생산에 들어가 현재까지 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회사는 국내 기술력으로 일본 제품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JST사업에 참여하면서입니다. JST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도 더 힘이 됐습니다.

오지환 저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건수만 180만건 정도입니다. 현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일정, 공모전을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했고, 페이스북과 연동한 결과 16만명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 배너광고 툴을 개발하여 수익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JST사업에 참여해 송도에 있는 JST창업보육실 공간을 갖게 된 것도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창업내용 틀려 교육·지원방법 달라야

김종윤 지난 1년간 JST사업에 2백여 명이 참여해 교육을 받았고, 이중 50%가 창업을 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창업하는데 도움이 된 부분, 교육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지요.

이경선 저는 1기생이어서 집합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생마다 요구 수준이 다르지만 저의 경우 집합교육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생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환 회사 그만두고 1년간 애플개발하면서 백수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었습니다. 사업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는데 교육받고 나올땐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마다 창업내용을 틀리기 때문에 업종마다 지원과 교육이 달랐으면 합니다.

김종윤 청년일자리, 벤처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년창업정책과 타시도와의 차이점, 잘된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우기 서울의 벤처정책은 '청년창업프로젝트'입니다. 장점은 입주기간이 1년으로 긴 편이고, 개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연계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것도 좋은점 입니다. 경기도 창업정책은 'G창업스쿨, 창업프로젝트'입니다. 창업스쿨은 교육이고, 프로젝트는 우수아이템을 가진 신규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지만 비용처리가 후 결재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선 아쉬운 점입니다.

안표진 JST사업의 장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창업하면 2백만원 을 지원하고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아이템 창업자에게는 엔젤투자를 통한 배팅방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예비창업자나 단기로만 지원하는 데 비해 우리시는 창업단계, 창업 후 7년까지 관리하고 있는 게 내세울 점입니다.

재정 어렵지만 창업예산 최대한 지원

김종윤 올해도 JST조성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안표진 2013년까지 도화구역 내 15층 규모 벤처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빌딩에는 벤처창업, 금융, 회의 등이 모두 가능한 공간입니다. 시는 어려운 형편에도 창업예산만큼은 깎지 않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창업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제공돼 많은 도움이 됐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 아쉽습니다. 최고 1년인데 그 이후엔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고민이고요. 창업업체들 대부분이 자금력이 부족한데 자립할 수 있을때 까지 공간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지환 경진대회를 나가는 2~3개월 기간 지원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대회가 있는데 JST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예산실무가 약한 창업자들에게 집합교육으로 자금집행 방법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이우기 JST사업의 핵심이 선택과 집중인데 콘텐츠면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벤처빌딩이 건립되면 유사한 업종끼리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길러지고, 실력이 늡니다. 전문성이 길러지는 가운데 좋은 기술개발로 특허도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조업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몰랐던 시의 창업정책, 타시도 정책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예비창업자들 혼자서 공공거리지 말고 멘토를 찾아 조언을 받고, 창업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경선>

창업을 하는 분들 중에 돈이 목적인 분들도 있다.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에 임했으면 한다. 시의 지원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지환>

참 / 여 / 후 / 기

청년벤처 100만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공간, 교육,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다. 인천경제를 살리는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안표진>

JST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정확히 알릴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하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충분히 준비한 후 실행하기를 당부한다. <김종윤>

무슨일이든 1만시간을 준비하면 뭐든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할땐 자신이 잘 아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이우기>

호화 예식 ‘안~돼’, 알뜰살뜰 새 출발

결혼은 ‘인류지대사’로 불릴 만큼 인생의 중대사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지만 지나친 허례허식으로 경제적 곤란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결혼예식 비용이 늘고, 남들보다 좋은 예식장, 고급 혼수를 선호하는 추세가 낳은 예식문화 때문이다. 일생에 한번이라는 생각에 남들보다 좋은 곳에서 화려한 결혼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실속있고 알뜰한 결혼식이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대회의실, 구청웨딩홀을 이용하면 실비만 내고 번잡하지 않은 알뜰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예식장만 대여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하객식사, 메이크업 등은 결혼 당사자들이 따로 준비해야 하지만, 번잡한 주차난, 꽃기 듯 치르는 예식은 이곳에선 볼 수 없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포토저널리스트

웅진군청 효심관

웅진군청 효심관은 구민들을 위한 예식공간이다. 예식공간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을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다. 효심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상 웅진군에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 287석 규모의 이곳은 예식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군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효심관에는 마이크, 조명, 음향 등이 설치되어 있고 폐백실, 폐백한복까지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들을 편의를 돕고 있다. 하객들을 위한 식사도 구내식당과 협의하면 준비가 가능하다. 효심관 이용료는 시간당 5만원이고 식당 사용료는 시간당 7만원이다.

문의 899-2121, 899-2123

연수구청 대강당

연수구는 지하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연수구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결혼식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의자, 폐백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1시간당 9만원이고, 이는 피아노 등은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구청식당은 이용할 수 없고, 식장의 기본물품을 제외하고 웨딩드레스, 사진촬영, 메이크업, 하객식사 등은 당사자들이 따로 준비해야 한다. 예식은 토요일엔 2회 가능하다. 13시~14시, 15~16시, 일요일은 오전 11~12시, 13~14시, 15~16시 등 3회 가능하다.

문의 810-7152



계양구청 ‘코리아나 컨벤션’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구청웨딩홀 ‘코리아나 컨벤션’은 구민만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내에 웨딩업체가 들어와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신랑, 신부의 예식을 돕고 있다. 컨벤션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예식을 치를 수 있고, 혼잡하지 않는 쾌적한 결혼이 가능하다. 이곳 예식홀에서 웨딩드레스, 사진촬영, 폐백까지 토탈로 이용해도 예식비용은 1백30만원 정도 든다. 외부 웨딩업체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다. 계양 코리아나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보통 한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한다.

문의 542-9090

부평구청

부평구청은 7층에 마련된 대회의실을 웨딩장소로 대여한다. 의자, 마이크, 방송시설, 사회석 등이 마련되어 있다. 좌석수는 360석 규모다. 식사는 대회의실 맞은편에 마련된 구내식당에서 가능하다. 식사비용과 음식 가짓수는 식당과 협의하면 된다.

문의 509-6125

경인여대

경인여대가 여성가족부의 ‘작은결혼식캠페인’에 동참해 일반인들에게 예식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식장소는 대학내 기념교회와 250석 규모의 공연장, 잔디광장 등으로 신랑, 신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봄과 가을철에는 야외 결혼식이 가능하다. 결혼식 연회가 가능한 대형식당도 제공하며 피부미용과와 패션디자이너과는 신부 화장이나 헤어, 저렴한 드레스 대여 등을 돕는다.

문의 540-0095



골목 : 살아지다



인천의 골목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풍파에 깊게 패인 도시의 주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도시의 모습도 바뀐다. 한 도시가 어떤 주름살과 어떤 피부, 어떤 눈빛을 갖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닮기 때문이다. 인천 골목만큼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 도시도 드물다.

글 · 사진, 오네이션, 펄스 퍼레이드

골목, '살아'지다 展

장 소 미추홀도서관 1층 갤러리

기 간 5월 16일(수)~6월 3일(일)

오픈닝 5월 16일(수) 오후 5시

작가(유동현)와의 대화 5월 22일(화) 오후 3시

오래된 골목을 보고 있노라면 엄마의 젖가슴이 생각난다. 자식들에게 다 빠르고 축 늘어진 젖 모양처럼 도심 속 골목은 그렇게 퇴락한 채 겨우 연명하고 있다. 엄마의 그 젖무덤에는 '틈'이 있었다. 우린 그 틈에서 나오는 따스한 온기와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다.

집과 집이 만들어낸 틈, 골목. 골목은 우리를 낳았고 키워줬다. 한 집, 두 집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간인 골목에는 개인, 가족, 동네 그리고 도시의 크고 작은 내러티브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로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첫 줄이 된다.

인천의 골목은 개항 이후 파란만장했던 도시발전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바다가 열리자 언덕바지 양지 바른 곳에 다다미방 일본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쪽에는 하루 종일 춘장 볶는 냄새가 진동하는 중국 동네가 생겨났다. 이어 항구 막노동 일자리를 쫓아서 올라 온 팔도 사나이들은 고향의 식솔과 친지들 까지 불러들여 한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이북 말투를 사용하는 골목들이 하나 둘 만들어졌다.

6·25 전쟁이 터졌다. 인천은 전쟁통에 밀려들어 온 피란민에게 또 다른 거처를 내준다. 그들 대부분은 산등성이나 구릉지에 슬단지를 걸면서 달동네 풍경을 만들어 냈다. 산 반대편에는 진한 향수 풍기는 미군동네가 생겨났고, 한쪽엔 나병환자들이 닭을 치고 천형(天刑)을 극복하면서 삶의 끈을 놓지 않던 골목도 형성됐다. 이러한 골목들은 인천의 과거, 그리고 엄연한 현재의 사진첩을 구성하는 소재들이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내신 공기가 만들어낸 기억과 시간이 훑고 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동안 인천은 '반달족'의 침입을 받은 것처럼 곳곳이 무참히 파괴당하는 모습이었다. 재생사업이란 이름 아래 어제 보았던 골목이 불도저의 삽날 아래 하루아침에 사라지곤 했다. 인천의 골목은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다시 골목을 찾고 있다. 도시의 속도에 싫증나고 밀려난 사람들이 '영원한 노스텔지어' 엄마의 젖무덤을 그리워하듯 안식과 치유를 위해 하나 둘 킁킁하고 녹록한 골목길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골목은 '힐링(Healing) 캠프'다. 이제 골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지고 있다.

오랜만에 피이로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1 십정동 2010 2 수인역 2008 3 십정동 2011
4 용현동 2010 5 율목동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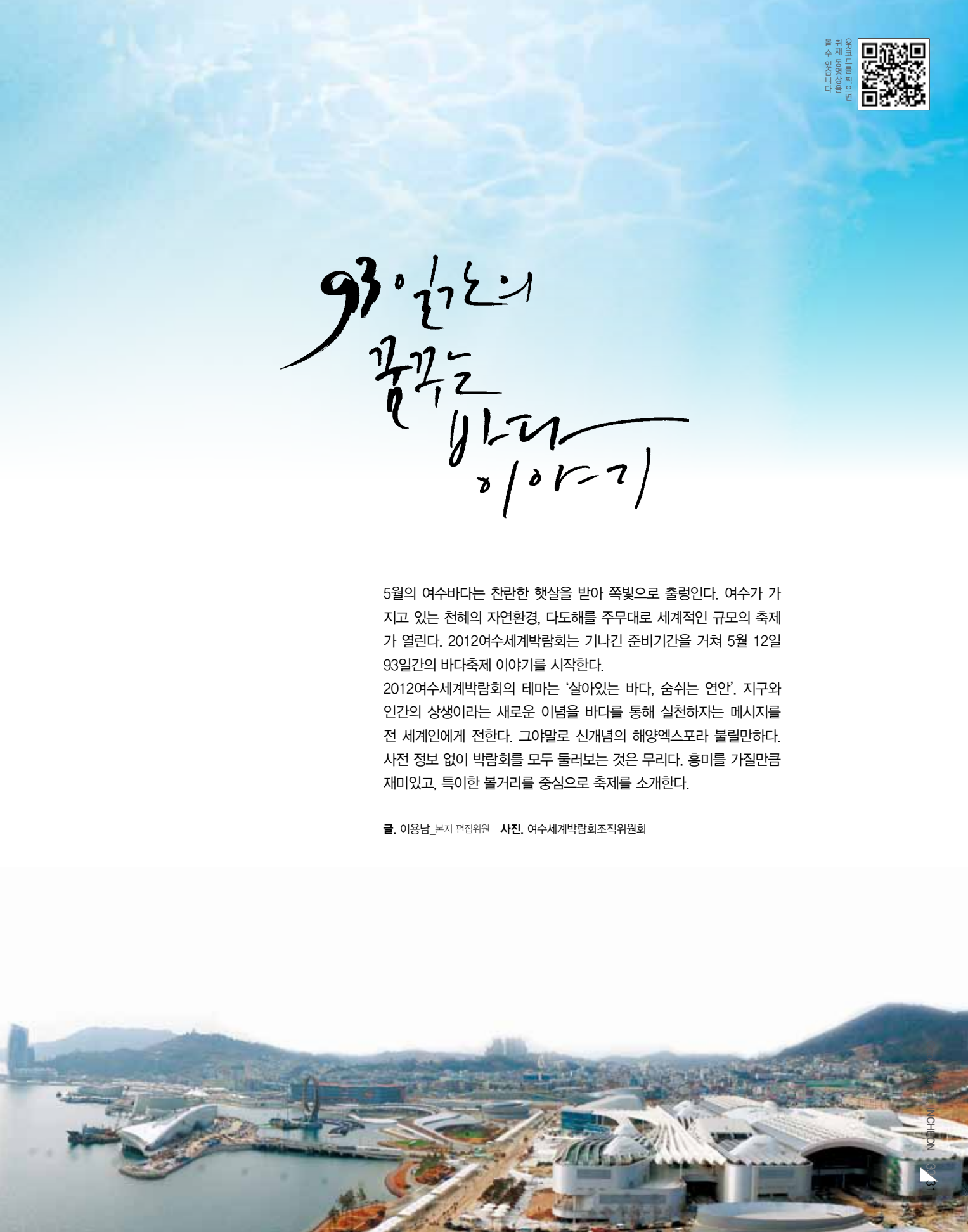


93일간의 광광둥 이야기

5월의 여수바다는 찬란한 햇살을 받아 쪽빛으로 출렁인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다도해를 주무대로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가 열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기나긴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2일 93일간의 바다축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테마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지구와 인간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바다를 통해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전한다. 그야말로 신개념의 해양엑스포라 불릴만하다. 사전 정보 없이 박람회를 모두 둘러보는 것은 무리다. 흥미를 가질만큼 재미있고, 특이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축제를 소개한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초대형 해상무대 '빅오' 밤바다에 펼쳐진 대형 버라이어티 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초대형 해상무대 '빅오(Big-O)'다. 해상공간에 지름 35m 규모의 O형 구조물인 '디오'는 초대형 해상분수와 더불어 자유자재로 물속에 잠겼다 떠오르는 해상무대다. 이곳서 펼쳐지는 쇼와 공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빅오에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한 리빙 스크린 기술이 도입된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디오에 물을 뿌려 스크린을 만들고, 레이저 등을 쏘아 이미지를 만든다. 또 수상공연 페스티벌, 해상쇼 등 놀라운 볼거리로 새로운 공연 문화를 보여준다. 빅오의 'O'는 바다를 뜻하는 '오션(Ocean)'의 이니셜이자 미래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영어 'Zero(0)'의 뜻을 담고 있다.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사신기, 심청전 등 영상 상영

디지털갤러리는 움직이는 영화관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초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사신기, 심청전, 신지깨여 인어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꿈의 고래, EDG트위터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LED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스카이다워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 파이프오르간

수직구조물인 스카이다워는 67m로 박람회장 내 가장 높은 건물이다. 버려진 시멘트저장고를 재활용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스카이다워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영구시설로 보존한다.

스카이다워 외부는 독특하다. 외관은 하프모양으로 하프 현이 오르간의 기둥역할을 한다. 오르간 소리는 반경 6km까지 울려 퍼져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80음계까지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매일 개·폐장 시간을 뱃고동소리로 알린다. 사일로 1호기는 남해안의 비경을 보여주는 영상관으로 운영되고, 2호기는 해수담수화시스템을 설치해 담수화 과정을 직접보고,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다.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데 약 20분 걸린다.

아쿠아리움 러시아 흰고래 벨루가 눈길 '확'

국내 최대 규모로 6천30톤급 수조에 300여 종의 물고기 3만4천마리가 노닌다. 수조는 63씨월드의 6배 규모다. 희귀한 바이칼 물범, 러시아 흰고래, 해마, 해룡도 만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러시아 흰고래 벨루가다. 국내 최초 지상 아쿠아리움이기에 자연채광이 들어간 바다속 세계가 환상적이다.

전시장은 바다동물관, 바다체험관, 에코테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존 정글속처럼 연출된 에코테리움은 피라루크, 피라니아 등 열대어 100여 종을 감상할 수 있고, 바다체험은 16m에 이르는 대형수조 '딤블루씨'와 360도 아쿠아돔을 볼 수 있다. 6천여마리의 정어리떼가 군무를 펼치는 '대형엔쵸비 수조'도 장관이다. 관람시간은 90분.

주제관 '소년과 듀공' 모험영상 하이라이트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육지에서 보면 향유고래가 물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지만 바다에서 보면 섬과 아름다운

해안을 형상화 했다. 전시실 내부는 20m길이의 벽면 스크린과 지름 5m의 반구형 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5대양의 모습이 실감나게 연출돼 실제 바다 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준다. 주요 콘텐츠로는 남극, 이어도, 우즈홀 등 해양기지 연구활동과 팔라우, 골드코스트, 산토리니 등 인류가 사랑한 5대양 연안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생명의 바다를 되찾은 소년과 듀공이 모험을 연출하는 메인쇼는 주제관의 하이라이트다. 관람시간은 30분.

한국관 다도해 풍광 등 디오라마로 펼쳐져

거대한 태극 문양을 본 뜬 전시관과 영상관 두 개의 공간에서 한국인의 해양 역량이 유감없이 펼쳐진다. 전시관에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다도해의 풍광, 몽돌 해변, 갯가의 생업현장, 바닷가 다랭이논, 반구대 암각화와 장보고 이야기 등 바다와 관련된 우리의

삶과 풍경을 실제 스케일의 디오라마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영상관은 세계 최대 규모인 높이 15m, 지름 30m 돔스크린을 통해 블록버스터 영화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영상이 선보인다. 관람시간은 15분.

국제관 참가 105개국, 공간규모 가장 커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전세계 105개국이 참여한다. 국제관은 박람회 참여국들이 자신의 나라를 알리는 기획, 전시 공간으로 건물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코엑스 3배, 주제관의 12배 규모다. 바다를 주제로 하는 엑스포답게 국제관의 건물 외관은 안개 속에 보이는 다도해 섬을 형상화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 3대 양별로 각 국가관을 구분 배치했다. 국제관 2층은 세계의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문화 공간으로 전망대가 설치돼 관람객들의 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면적 : 270만㎡
장소 : 전남 여수신항 일대
마스코트 : 여니(Yeony), 수니(Suny)
참가국 : 105개
입장권 : 3만3천원(성인보통권), 전체 9종
특화 및 전시시설 : 80개



Tip 여수세계박람회 가는길

●입장권 예매 입장권은 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 기업은행·광주은행·이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보통권은 성인 3만3천원, 청소년 2만5천원, 어린이(4~13세 미만) 1만9천원이다. 주제관 등 8개 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1인당 하루 2곳)하면 대기시간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가는 길 인천~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천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동순천C로 나가면 된다. 인천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엑스포 기간에는 KTX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웅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7분 소요된다.

●볼거리 동백 숲이 우거진 오동도는 엑스포장과 붙어 있다. 향일암은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로 명성이 자자하다. 여수 시내에는 국내 최대 단층 목조건물인 진남관(국보 제304호)이 있다. 문의 여수엑스포역 관광안내소(061-690-2588), (061-681-5657).



“잘 자란 아들 딸에 늘 고마움”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 전쟁통에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길을 열어 준 이가 있다. 40여 년을 전쟁고아나 혼혈아들을 보살피는 데 헌신한 서재송(83, 비오) 옹.

그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들과 인천에서 40여 년의 인생을 함께했다. 그가 평생을 고아들의 삶을 열어주게 된 것은 연평도에 부임한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최분도(Bebedict A. Zweber, 미국)신부를 만나면서였다. 최 신부는 전쟁으로 힘든시기, 고아들을 돕는 파트너로 서재송 할아버지를 선택했다. 그도 신부의 좋은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처음엔 덕적도 섬에 있는 고아들과 다른 곳의 아이들을 받아 16~30명씩 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방이 모자라 한방에 10명씩 자면서 매일 전쟁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쌀과 학비는 최신부와 후원자들이 도움을 줬지만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는 것은 온전히 서 할아버지와 그의 부인 인현애(81, 크리스티나) 할머니 몫이었다. 인 할머니는 남편을 따라 인천 송현동성당, 부평3동본당 등을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손이 마를날이 없었다.

“힘들고, 혼란스럽던 시기였어요. 어려운 시기에 부모도, 국가도 돌보지 않던 고아들을 챙겼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중단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입양을 보냈다. 당시 한국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은 고사

하고 먹고 입히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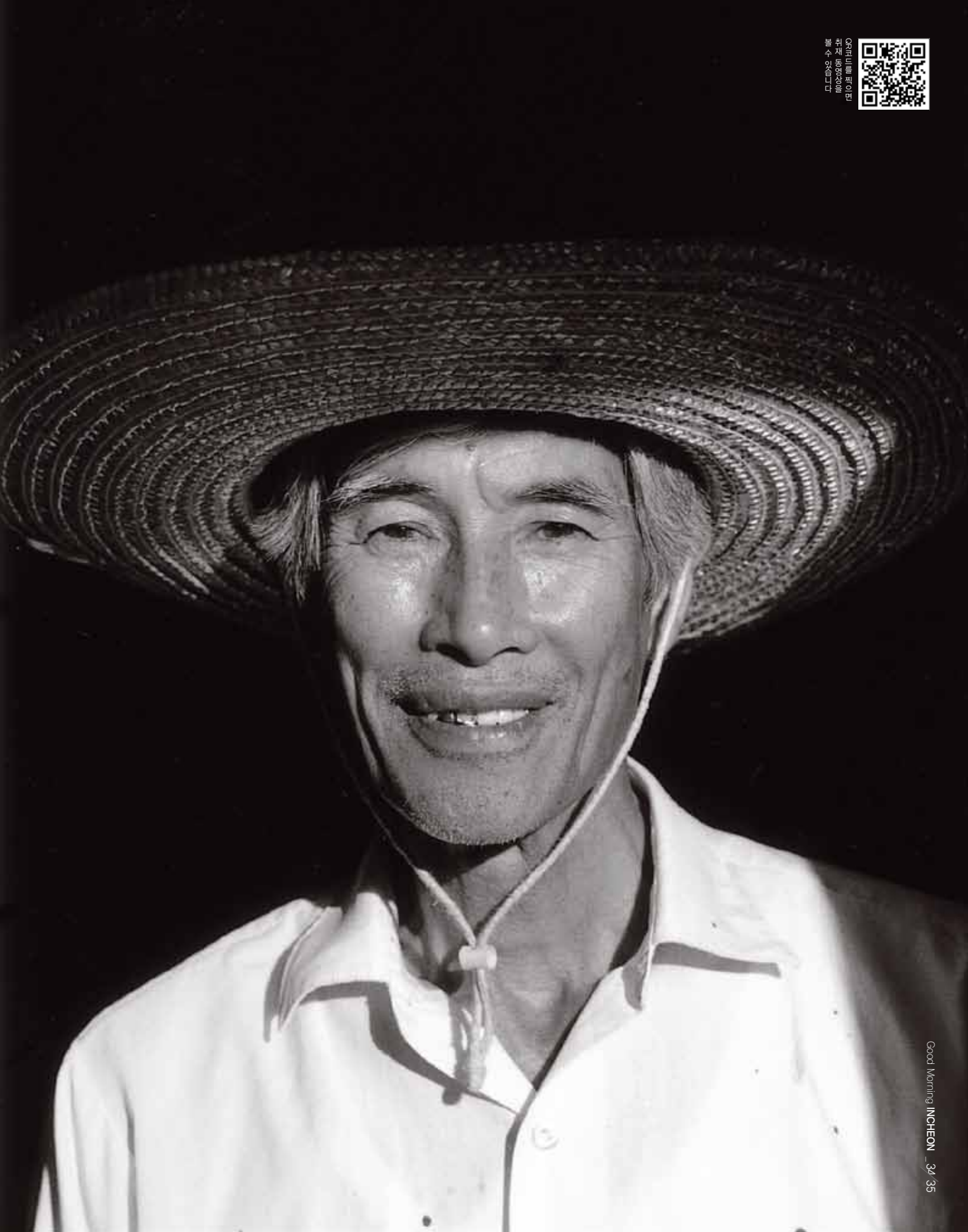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입양요청이 오면 양부모의 학력, 인격, 능력 등을 철저히 알아본 후 서류를 꾸몄다. 아이들이 떠나기 전 날엔 케익에 불을 켜고 파티를 열며, ‘나의 살던 고향’ 노래를 다 함께 불렀다. 몇 년씩 함께 밥먹고, 생활한 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울 때면 매년 공항에서 눈물을 쏟았다.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울며 버티는 아이들의 등을 떠미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서 할아버지는 큰 아이와 혼혈아 입양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간난아이나 영아들에 비해 큰아이와 혼혈아의 입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혼혈아들은 부모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애를 먹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미국가서 잘 컸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속 썩이던 녀석들이 마음 잡고 다들 잘 컸어요.”

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잘 크고 있는지 보기 위해 미주지역을 여러번 방문했다. 미국을 방문하면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싸움아닌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 할아버지는 97년 이후론 입양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일일이 손으로 쓴 아이들의 인적사항, 특징을 기록한 입양기록부 10여 권을 전산화해 혹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거나 뿌리를 알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남겨 둘 계획이다. 또 친부모가 그리워 부모를 찾고자 연락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5월 공연·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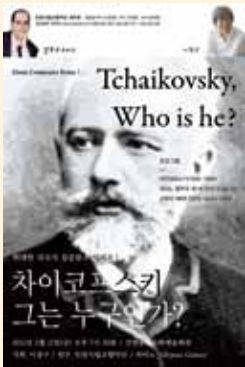
SUN	MON	TUE	WEN	THU	FRI	SAT
<div>6</div> <div>뮤지컬 〈안아줘요 무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5천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시간제인고수 조정곤과 판소리 명창 왕기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875-4644</div>	<div>7</div> <div>주크박스 플라이잉 어드벤처 뮤지컬 〈구름빵〉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2시, 4시30분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500-2000</div>	<div>8</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성인 2만원 /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오영실의 트롯트 보다 쉬운 재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새리재울 오후 7시 / 6천원(학생 무료) ☎ 760-3457</div>	<div>9</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프랑스 Ommm with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앵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5천원 ☎ 500-2000</div>	<div>10</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Ommm with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앵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5천원 ☎ 500-2000</div> <div>그림자인형극&연극 '해물야 놀자'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4시 / 무료 ☎ 505-5895</div>	<div>11</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위대한 작곡가 집중 탐구 시리즈 I 〈차이코프스키, 그는 누구인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 원, A석 5천원 ☎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고수 조정곤과 함께하는 "판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420-2744, 2732</div> <div>앵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5천원 ☎ 500-2000</div>	<div>12</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div> <div>퓨전국악단 '구름'의 〈시인과 함께 하는 퓨전국악 한미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4, 2732</div> <div>2012 이맘 테마 콘서트 'New Wave of modern rock' 더 핀, 블랙백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760-1005</div> <div>앵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5천원 ☎ 500-2000</div>
<div>13</div> <div>개그콘서트 더코미디쇼 in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30분, 6시30분 VIP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4만4천원 ☎ <주크코엔터테인먼트 1644-8246</div> <div>인천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성인 2만원, 학생 1만5천원 ☎ 인천시립극단 588-2341</div> <div>앵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2만5천원 ☎500-2000</div>	<div>14</div> <div>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가야금병창 정명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875-4644</div>	<div>15</div> <div>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 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766-4452</div> <div>제7회 기타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833-2080</div>	<div>16</div> <div>뮤지컬 〈지구가 뜨거워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 사랑극단꼬마세상 010-2898-0014</div> <div>커피콘서트 3 〈Memory of Music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 인천&아츠 1588-2341</div>	<div>17</div> <div>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은 오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교육극단 상상 420-2744, 2732</div>	<div>18</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타악 & 댄스퍼포먼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760-3457</div> <div>어린이교육연극T.E '엄마잔소리, 네버엔딩'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 오후 2시, 5시 1만원, 학생 7천원 ☎ 453-5710</div>	<div>19</div> <div>김경호 콘서트 in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B석 6만6천원 ☎ 에스컴퍼니 1566-9519</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의 〈브라스 판타지아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420-2744, 2732</div>
<div>20</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병배와 작법무 인천중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875-4644</div>	<div>21</div>	<div>22</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23</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COZ의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4, 2732</div>	<div>24</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두 가지 마음 극 '나 홀로 집에' & '뽕뽕래 오락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 505-5895</div>	<div>25</div> <div>레온카발로의 오페라<팔리아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3만원 ☎ 인천중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26</div> <div>레온카발로의 오페라<팔리아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div> <div>인천시립무용단의 〈리듬따라 춤따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4, 2732</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27</div> <div>레온카발로의 오페라<팔리아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div> <div>연극 〈옥탑방고양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전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28</div> <div>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국악한미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875-4644</div>	<div>29</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7회 정기연주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비루투오조 시리즈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div>	<div>30</div> <div>음악동화 '할머니 집 가는길'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3천원 ☎ 505-5895</div>	<div>31</div> <div>제20회 새얼국악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새얼문화재단 885-3611</div> <div>제18회 베를리오제리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S석 5만원, A석 2만원, 학생 1만원 ☎ 베를리오제리단 010-7338-1962</div>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위대한 작곡가 집중 탐구 시리즈 I
<차이코프스키, 그는 누구인가>

시립교향악단 '작곡가 집중 탐구 시리즈'의 첫 무대가 열린다. 이경구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멀리 스페인에서 찾아 온 피아니스트 알폰소 고메즈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알폰소 고메즈는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바로크시대부터 동시대의 곡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가진 연주자다.

또한 차이코프스키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라고 평한 교향곡 제6번 <비창>을 감상하며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일시 5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Ommm with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30회 정기연주회는 합창과 아카펠라의 만남이다.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아카펠라 실험실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프랑스 아카펠라그룹 Ommm과 인천시립합창단이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색다른 조화를 선보인다. Ommm은 5인조 아카펠라그룹으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 아카펠라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으며,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비트박스 축제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일시 5월 9일(수)~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아츠 공연 어린이 뮤지컬 <안아줘요 무무>

전 세계 60여 국가에서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안아줘요 무무>가 뮤지컬로 변신해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상상의 캐릭터 '무무'는 바다를 떠다니는 무와섬에서 소라게 통통, 불뿔뿔고기 투포우, 꼬마물개 보보, 꼬마고래 스누누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쌓아간다.

일시 5월 4일(금) ~ 6일(일)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2만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기획 공연 연극 <옥탑방 고양이>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2010년 4월 대학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공연까지 흥행으로 이끌며 신드롬을 일으킨 인기작이다. 88만원 세대인 2030 관객들의 꿈과 사랑 그리고 고민을 현실적 감각으로 풀어낸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사랑과 연애에 국한되는 뻔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현실적인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일시 5월 18일(금) ~ 27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6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뮤지컬 구름빵!! 놀라운 구름빵의 세계가 펼쳐진다~

어린이날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뮤지컬 구름빵이 올해 어린이날에도 변함없이 찾아온다. 이미 국내 최고의 어린이 창작 뮤지컬로 검증받은 뮤지컬 구름빵은 이번 어린이날, 최상의 시설을 갖춘 부평아트센터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종 완결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5월 4일(금) 오전11시, 오후 2시
5월 5일(토) 오전 11시, 오후2시, 4시30분
5월 6일(일) 오전 11시, 오후2시, 4시30분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500-2000

특별 전시 한국미술 100년展 - 한국 근·현대 미술의 큰 별들

20세기부터 100년간 한국 근현대 미술의 도입과 정착, 그리고 전개과정과 방향을 되짚어 보는 자리다. 우리나라 대표작가 35인의 작품 70여 점을 통해 우리 미술의 전개 양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일시 5월 19일(토)~ 7월 1일(일)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티켓 일반 7천원, 학생 5천원
문의 420-2732



- 1일~ 3일 제8회 인천서예전람회공모전 및 초대작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일~ 3일 손원희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일~ 6일 도자기 축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 4일~ 10일 2012인천미술한마당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1일~ 17일 2012인천현대미술흐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1일~ 17일 제14회 예유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16일~ 26일 미술로 보는 과학 이야기<예술경제발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 16일~6월 3일 사진전 '꿈목, 살아지다' / 미추홀도서관 전시실
- 18일~ 24일 제3회 오현주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18일~ 24일 명 ART CREW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8일~ 24일 제9회 프레임경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19일~ 31일 한국미술 100년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25일~ 31일 제8회 한상만 그래픽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25일~ 31일 한목회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5일~ 31일 양현재창립 40주년기념 서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9일~6월 3일 제48회 인천광역시 학생활영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5월, 밖이 더 좋다

야외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풍성~

계절의 여왕 5월, 바깥 나들이가 빈번해지는 시기다. 이럴 때 가족과 주머니 걱정 없는 공짜 야외공연을 즐기면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향긋한 봄 바람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을 소개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야외상설공연인 <황금.토.끼>가 시즌2로 돌아온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의 줄임말인 <황금.토.끼>는 즐거운 공연 관람으로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무대다.

<황금.토.끼>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에 저녁 노을이 예쁘게 물든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금요일 저녁에는 클래식, 마술, 전통놀이, 민요, 어린이 연극, 댄스, 7080 노래 등 매주 다른 테마의 공연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장단, 우리 춤사위로 풀어내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신명나는 몸짓과 흥미진진한 인천시립극단의 야외극, 귀와 마음을 배부르게 채우는 인천시립합창단 노랫소리, 가슴까지 시원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브라스 향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인천시립예술단을 느낄 수 있다.

복장과 형식,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뜨거운 감동과 열정적인 무대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예술마당 <황금.토.끼>는 올해도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적인 무대로 새로운 감동을 줄 것이다.

또 매주 일요일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인 '얼쑤'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한다. 신선하고 다양한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얼쑤'는 평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국악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만큼 흥겹고 친숙하게 관객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수봉공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은율탈춤을 비롯한 민속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민속놀이마당은 신명나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 몸 속에 녹아있는 흥겨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월미도 야외무대와 자유공원에서 크고 작은 연주회와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황금.토.끼>

일시 4월 21일~10월 6일, 매주 금,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무료
문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 2732
 ※ 야외공연은 우천 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월 4일 한울소리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전통과 퓨전의 가락 뿐 아니라 재할용악기를 연주하는 퍼포먼스 타악팀이다. 우리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은 퓨전 타악 소리와 강렬한 메시지로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

●5월 11일 <고수 조경곤과 함께하는 '판소리'>

시각장애인 고수 조경곤의 뛰어난 능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그의 손끝에서 올라오는 북소리와 명창 왕기철과의 조화는 관객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하다.

●5월 18일 가족뮤지컬 <황금 알을 낳은 오리>

동화 <황금 알을 낳은 오리>를 신나는 뮤지컬로 각색, 다양한 캐릭터와 신나는 율동, 노래가 가미된 볼거리가 있는 공연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재미난 이야기에 행복해 지는 시간이다.

●5월 20일 <COZ의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

굵직한 음색의 남자보컬과 감미로운 목소리의 여자보컬, 색소폰, 기타, 건반, 드럼 등으로 구성된 COZ의 공연이다. 재즈,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꾸며지는 무대를 즐기길 바란다.

<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일시 4월 22일~9월 30일,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무료
문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75-4644

●5월 4일

시각장애인고수 조경곤과 판소리 명창 왕기철

●5월 1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산조 및 가야금병창 이수자인 정명희의 가야금 병창 공연

●5월 20일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능하스님

●5월 27일

창극과 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소리를 들려주는 국악한마당

<2012 수봉민속놀이마당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일시 4월 22일~6월 3일(상반기), 9월 9일~10월 21일(하반기)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수봉민속 놀이마당(수봉공원입구) ※우천 시 국악회관 2층 공연장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은율탈춤보존회
내용 인천 및 전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 14개단체 초청공연
 체험마당-탈그리기,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문의 은율탈춤 ☎875-9953

1892년 영화학당, 공책 연필 사용

글. 조우성_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 파이로트 만년필 60년대, 은장에 용 조각

▲ 먹통 조선말기(백동으로 제작),상감기법으로 글과 그림 조각

개항 전까지 명맥을 이어 온 인천의 교육기관은 몇몇 향교와 서당이 고작이었다. 이 중 향교는 도호부의 관할 하에 학동을 가르쳐 왔으나, 1894년 고종황제가 과거제도를 폐지하자 예로부터 해왔던 문묘 향사(享祀)에 주력하면서 교육기관으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일반 백성들의 자제를 교육시킨 것은 사학(私學)인 서당이었다. 수학 연령은 8, 9세에서 15, 16세까지 다양했지만, 입문서는 ‘천자문’이었다. 훈장이 ‘하늘 천, 따 지’ 하고 읽으면, 학동들이 일제히 그를 따라 읽는 소리가 온 동네에 함창처럼 낭랑하게 퍼졌다고 한다. 땡기머리들이 ‘천자문’을 다 떼고 나면, 훈장이 노고를 치하하고, 글을 처음 배운 학동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 등을 해 가지고 와 책 거리를 했다. 그 후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 독서의 폭을 넓혀 갔는데, 당시 훈장의 교수법은 온 세상사를 넘나드는 ‘전인적 교육’이었다.

학습의 첫 과정은 아무래도 ‘읽기’와 ‘쓰기’였을 것이다. ‘읽기’야 입으로 소리내면 그만이지만, ‘쓰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종이 한 장을 금쪽처럼 여기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 무렵엔 ‘공책’에 하늘 천 자 100번 써 오기’ 같은 고생스러운 숙제가 있을 수 없었다.

공책과 연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학동들은 어떻게 글씨를 익혔을까? 대나무 붓으로 일정한 크기로 만든 ‘사판(沙板)’에 글씨를 썼다 지우거나, 붓에 먹물 대신 물을 적서 ‘나무 서판(書板)’ 위에 썼다가 마르면 다시 쓰는 ‘경제 문구’를 활용했던 것이다.

학동들이 연필과 공책을 비로소 접하게 된 것은 개화기 이후였다. 문방사우 곧 붓, 벼루, 연적, 종이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행여 실수라도 하면 손이며 옷이 먹투성이가 되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신교육의 선구인 인천 영화학당이 설립된 것이 1892년이요, 수업과목이 산수, 영어, 성경, 지구약론, 바느질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초기 형태의 공책과 연필을 사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존스 목사 내외가 미국 현지인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마당에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공책과 연필을 나누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듯싶다. 더불어 산수 시간에 없어서는 안 될 분도기, 대나무 자, 삼각자, 지우개, 컴퍼스 등도 이 무렵에 소개됐을 것으로 본다.

신학문을 접하면서 문화적 충격과 생활의 혁명이 몰아닥쳤다. 그



▲ 잉크병 60~70년대

▲ 등사펜 근대

▲ 먹상자 일제시대 제작


▲ 휴대용붓통 구한말,붓과 먹물을 휴대할 수있음

된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책 보통이 대신 등에 매는 세칭 ‘탄도셀’이었다. 원래 ‘탄도셀’은 네덜란드 군인의 배낭 ‘란셀(Ransel)’을 일본인들이 차용해 그리 불렀는데, 일본군이 그것을 모방해 사용했던 것을 학교에 들여와 보급시켰던 것이다. 값이 비쌌지만, 부모들은 ‘학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기념품으로 이를 장만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학동’들이 비로소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로 불린 것은 1923년

이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였지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색동회 회원들의 노고가 결실을 본 것이다. 일제는 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1939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중단시켰으나, 광복 후 재개했다. 서당에서 학당을 거쳐, 보통학교, 국민 학교,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동안 ‘학동’은 ‘어린이’로 거듭 태어났고, 문방사우가 문구의 대명사였던 시대에서 볼펜, 샤프, 전자사전, 컴퓨터가 필수인 시대로 걸어 왔지만, ‘어린이날’만은 우리 겨레와 영원히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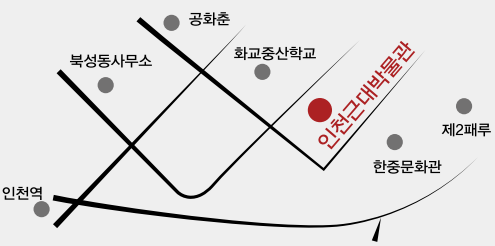


▲ 작가용 만년필 일제시대, 오래쓸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 제작 됨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문구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관장 최응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공화춘
북성동사무소
화교중산학교
인천근대박물관
제2패루
한중문화관
인천역

인천, ‘재정위기’ 극복할 수 있다

‘양질의 자산 담보로 지방채 발행’ 계획



우리는 최근 재정위기와 관련 토지 등 양질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해소할 계획이다. 허종식 대변인은 지난달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위기 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허 대변인은 송영길 시장의 말을 인용해 “인천시는 재 정 파탄에 이를 만큼 급박한 재정위기가 아니다. 다만 유동성 경색 으로 인한 위기”라며, “인천시는 희망이 있는 도시다. 자산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며 대기업 투자도 이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

할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교육환경도 바뀌어 인재가 떠나는 인천에서 돌아오는 인천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재정위기가 2007년부터 누적된 세수결손 8천500억과 대 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채무 과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414억원(26%) 감소,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정경비 미부담분 1천 947억원 등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국대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 선 준공 등 대규모 세출 수요 예상돼 자금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했다. 허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 의 자산을 담보로 한 펀드조성으로 현금을 유동화(8천억~9천억원) 하고, 이달 중 2천여억원의 세출 구조조정 등 기존 사업의 강력한 구 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일반 가용재원 연 3 천억~4천억원을 채무 상환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재정위기에서 벗 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66

기타큐슈시와 ‘환경분야 교류협력’ 협약체결

우리는 4월 18일 일본 기타큐슈시와 두 도시간 환경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등의 환경분야에 관한 정보공유,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환경박람회 등을 통한 환경관련 비즈니스 매칭, 정기적인 교류 및 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이다. 기타큐슈시는 1960년대부터 공해 극복의 역사를 가진 환경 선진 도시로 각국에서 환경 관련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8년 기타큐슈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뒤 200여 차례 상호 방문과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1998년부터 양 도시 공 무원을 상호 파견해 국제행사 등 교류 협력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440-3422

기차타고 인천바다로 놀러가자!

코레일공항철도는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용유 임시역 까지 열차를 운행한다. 용유 임시역은 바닷가에서 50m가량 떨어져 있고 낙조 명소인 마 시란 해변, 거잠포구, 무의도행 잠진도 선착장 등이 걸어서 10~ 20분 거리에 있다. 역에서 버스로 10분을 가면 을왕리, 왕산해수 욕장, 선녀바위 등에 도착할 수 있다. 용유 임시역 열차 운행은 오전에는 서울에서 용유 방면으로 4차 례, 오후에는 용유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례 예정돼 있다. 연장 구간에 대한 추가 이용 요금은 없으나 종차역인 인천국제공항 역에서 용유 임시역 구간만 이용할 경우 9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공항철도 측은 수도권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를 감 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용유 임시역을 운영해 왔다.

문의 : 코레일공항철도 ☎745-7788

외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서 살기 좋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주환경에 대체 로 만족하지만 대형 쇼핑몰과 국제병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또 중대한 질병(암)에 걸렸을 경우 본국의 병원, 인천 관내 종합병원 등의 순으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정주환경에 만 족하는 외국인들은 쾌적함, 교통, 교육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서비스센터가 IFEZ 내 외국인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IFEZ의 생활 만족도, 정주환경 및 글로벌서비스센터 설문조사의 결과다. 글로벌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객지향 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글로벌서비스센터 ☎453-7662

송도 공짜로 구경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고교생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까지 매월 2째, 4째 수요일 오후 4시간 범위 내에서 홍보투어를 실시한다. 투어대상지는 컴팩스마트시티관, NEATT(동북아트레이드타워), 수 상택시 승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대교 기념관, 사이언스 빌리지 확대 단지를 포함한 개발현장과 센트럴파크 등 송도국제 도시 내부다. 홍보투어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단체와 사회각계 주요 인사,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수상택시의 승선 정원 과 투어의 효율성을 고려해 1회당 30명으로 운영한다. 접수는 인천경제청 공보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 (453-7089)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75

이제,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큰일나요

우리는 최근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대공원의 면적은 남동구 장수동 236 일대 298만4천㎡이고, 계양공원은 계양산 자락 21만㎡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공공 장 소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이들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다른 공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440-2725

연고자 없는 분묘 549기 정비

우리는 5월 말까지 인천가족공원의 '무연분묘'를 개장한다. 시는 인천가족공원을 정비하기 위해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 가족공원 2단계 사업지역에 안치된 1천830기를 상대로 분묘 조 사를 한 결과 549기가 무연묘로 확인됐다. 가족공원에 있는 분묘 중 무연고 분묘는 2회의 개장공고를 거쳐 무연분묘로 확인되면 개장하게 된다. 2차 공고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 후 부평가족공원의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무연분묘를 제외한 유연분묘의 개장은 4월말 보상협의를 통보, 5~6월 분묘 개장과 보상금 지급 등으로 추진된다. 무연분묘 등의 개장은 분묘 일제조사와 조사내용과 묘적부 등 공 부 일치 여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공고, 개장 후 화장과 봉안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문의 : 시 종합건설본부 ☎440-5171

월미도에서 만나는 관광기념품

매주 토요일 월미도에서는 인천의 지역특성과 문화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월미 도 내 ‘2012 관광기념품 주말전시장’을 운영, 국내 · 외 관광객들 에게 인천과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체험 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2 관광기념품 주말전시장에는 공모전과 연계된 인천 관광기념품이 가득하다. 시 관계자는 “유람선과 놀이공원, 싱싱한 생선회가 유명한 인천 관광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이뤄지는 이 행사는 관람객들이 월미도에서 놀이기구를 즐기고, 싱싱한 생선회를 먹는 등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69

‘자동차세 연납’ 차량 32% 증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연납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31.9% 늘었다. 1월과 3월 연납제에 참여한 차량은 29만6천414대로 지난해의 22만4천661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연납의 편의성과 가계부담 완화 효과, 시와 군 · 구의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납 차량은 지난 2010년 42.3%, 지난 해엔 2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 나뉘어 부과된다. 연납은 연간 4차 례 실시되는데 1월 납부 차량은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54

<p>‘무의 풍경’ 따라 바닷길 걷는다</p> <p>중구는 이달 3일 소무의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2.48km의 무의바다누리길을 개통한다.</p> <p>구가 총사업비 10억 6천여 만원을 들여 2010년 11월부터 조성한 무의바다누리길은 해양자원과 소무의도를 자원화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무의도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군 병참기지로도 이용된 섬이다.</p> <p>무의바다누리길에서는 부처꾸미(당제를 지냈던 곳), 몽여해변, 몽여(두 개의 바윗돌), 명사의 해변(박정희 전대통령 휴양지), 장군바위, 당산과 안산(두 봉우리), 어촌마을, 소무의인도교를 포함한 누리 8경을 볼 수 있고, 팔미도 · 월미도 · 인천대교 · 송도국제도시 · 영흥도 · 대부도를 볼 수 있는 전망데크, 정재(하도정), 아트벤치(동상), 만선기(포토존)도 설치돼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p> <p>문의 : 중구청 ☎760-7181</p>	<p>올봄 여행지는 이곳!</p> <p>우리시의 대표적 명소를 둘러보는 ‘월미달빛누리 테마투어’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p> <p>이 투어는 주제와 명소의 종류에 따라 인천 짬물여행 팔미도 여행, 체험낚시여행, 아라뱃길여행, 자연이 숨쉬는 인천 월미도 트레킹,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골목 투어, 과거 · 현재 · 미래가 있는 여행 등 8가지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p> <p>주요 명소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월미전통공원, 덕적도,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차이나타운,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대교 등이 있다.</p> <p>각 여행은 롯데관광개발(☎1577-3700), 여행스케치여행사(☎02-701-2506), 현대마린개발(☎032-885-0001)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버스운영, 유람선 운영, 온라인 관광객 모집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p> <p>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322</p>
<p>파라마운트 콘텐츠 판매업체 인천으로 이전</p> <p>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3일 파라마운트 콘텐츠 동북아 판매권을 가진 ㈜어거스틴앤솔리아나엔터프라이스(A&J)와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p> <p>이 업체는 미국, 일본 등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테마파크 컨설팅, 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 영화 · 드라마 ·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고 있다. 파라마운트사의 콘텐츠에 대한 한국, 일본 판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p> <p>이 회사는 서울 종로에 있는 본사를 이달 초 다수의 협력사와 함께 문화산업진흥지구인 경인국철 주안역 일대로 이전,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회사의 주력 산업인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 연간 100여 명의 20~30대 인력이 필요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인천정보산업진흥원 측은 이 회사의 인천 이전 계기로 많은 애니 · 콘텐츠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p> <p>문의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50-2172</p>	<p>인천공항 또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p> <p>인천국제공항이 세계 항공서비스 리서치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스카이트랙스사로부터 ‘2012년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서비스평가(ASQ) 7년 연속 1위에 이은 겹경사다.</p> <p>지난 1989년 설립된 스카이트랙스사는 항공서비스 리서치 분야에서 최대 조사 규모, 평가의 객관성 등으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매년 전세계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p>특히 이번 수상은 스카이트랙스가 지난 2011년 5월~2012년 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전세계 108개국 1천200만 명에 달하는 일반여행객 및 비즈니스 여행객과 여행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계 390여 개 공항에 대한 체크인, 도착, 환승, 출발 등 공항이용과 관련한 39개 분야의 만족도를 평가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p> <p>문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741-2424,5</p>
<p>중앙공원에 마닐라시 기념 조형물</p> <p>우리시는 지난달 25일 중앙공원에 필리핀 마닐라시와의 자매결연 기념 조형물을 설치했다. ‘새로운 문명의 만남’이란 제목의 이 조형물은 하트 모양을 기본구조로 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펼쳐 나가자는 의지를 형상화해 만들어졌다. 시의 조형물은 지난 2010년 9월 마닐라 시립동물원에 세워졌다.</p> <p>시는 지난 2008년 10월 마닐라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었고 시의회는 마닐라시의회와 교류 희망 기본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양도시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p> <p>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12</p>	<p>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p> <p>우리시는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운영한다.</p> <p>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 참여 노인 급여의 50%(월 최대 45만원)를 3개월 지원하는 인턴형 사업과 기업에서 연수생 신분으로 직무 연수를 하고 기업에는 연수비용으로 월 30만원을 3개월 지급하는 연수형 사업이 있다.</p> <p>시는 이를 통해 2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하고 참가 희망노인과 노인채용 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p> <p>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2</p>

남구 인터넷방송국 “구민이 직접 만들어요”

남구는 구정홍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청 인터넷방송을 시민이 참여하는 방송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과 함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포맷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은 미디어 접근성이 쉬운 스마트폰을 활용, 촬영 및 편집에 대한 기법 등을 중심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수강생들이 제작한 영상물은 구의 인터넷방송국 콘텐츠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 영상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분 발언대 형식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와 남구의 인문학 기획특강 ‘학산학’을 주민 눈에서 바라보는 기획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할 계획이다.

문의 : 남구청 ☎880-7977

‘항만 · 공항 연계 인천발전협의회’ 첫 회의

우리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항만 · 공항 연계 인천발전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회의는 송영길 인천시장,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인천신항 항로 깊이 준설, 동북아 저비용 항공사 인천 유치, 공기업 대형건설공사 지역 업체 발주 확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산하 실무협의회, 국제여행객터미널 태스크포스, 항만 · 공항 투자유치 TF를 통해 지역 현안을 다루고 있다.

문의 : 시 해양항공정책과 ☎440-4824

기후변화체험관 개관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변에 기후변화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관 1층에는 주제영상관, 기후온난화관이 배치되고 2층에선 기후변화체험실,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인 굴포누리교실, 녹색기차 등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굴포천 주변 곤충 등 생태환경을 살피는 ‘맹꽁이 수호대’와 ‘개똥이 생태교실’, 주민을 대상으로 굴포누리교실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아리가 운영된다.

구는 굴포3교와 4교 사이 유수지 공간을 정비해 생태환경 체험공간을 꾸미고 체험관 옥상에 36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체험관 내 일부 시설 견학과 프로그램 참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기후변화체험관 ☎509-3901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대학 운영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월까지 ‘제3기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귀농 · 귀촌 성공 및 실패사례, 작목별 기초농업 기술, 농촌생활의 이해 등 도시민이 농촌현지에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게 구성, 남동구 수산동 실습포장에서 현장실습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당초 교육인원을 60명으로 계획했으나 최근의 귀농 · 귀촌 열풍으로 접수기간 동안 210여명의 희망자가 몰려, 117명을 선발해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센터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센터 내 귀농 · 귀촌상담실과 귀농 · 귀촌 상담 전용전화도 운영한다.

문의 : 인천농업기술센터 ☎440-6931

월미도에서 분수와 함께 풍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 오른다.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모습을 달리하며 춤을 춘다.

지난달 28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앞 중앙, 음악분수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월미도를 찾은 사람들은 뜻밖의 아름다운 풍경에 발걸음을 멈춘다.

시는 북성동 월미도 앞 5천600여㎡의 바다를 매립하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상적인 조명을 자랑하는 대형 음악분수를 설치했다.

2010년 3월 착공 후 2년 1개월 만에 완료된 이번 공사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월미달빛 음악분수 외에도 서해안의 낙조와 함께 인천대교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낙조전망대, 구름언덕, 수변데크, 조석체험시설 등이 들어서 인천앞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해 월미도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시 항만공항시설과 ☎440-4805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운다’ 학생 모의의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0일 첫 실시한 제84회 모의의회는 인천 용마초등학교 5, 6학년 반장·부반장 등 학생회 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안’과 ‘학교 내 CCTV 설치안’을 모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했고, 참여했던 진가은 학생은 “처음 방문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진행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의원의 직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4월 16일에 개최한 제85회 모의의회는 도립고등학교 1·2·3학년 반장·부반장 등 학생회 임원 중 29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의의회에서는 “두발 자유화안”과 “교내 핸드폰 사용금지안” 등 안전과 “사교육 문제에 관한 교육청 시정 질문” 및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한 5분 자유발언”등을 처리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과 비속어 사용 등에 따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에서 언어순화 노력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는 심각한 사교육비에 따른 학부모 부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각각의 역할부여와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문화 학습으로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10회 이상 모의의회를 열고있다. 금년에도 상반기 8회, 하반기 6회 등 14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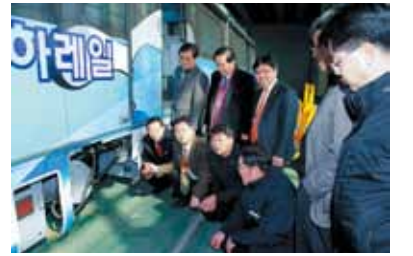
대규모 주요공사장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7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및 공사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시찰은 동춘동 송도자원환경센터, 장수동 남동정수사업소, 주안역 부근에 위치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 현장 지역을 시찰했다. 먼저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소각시설 실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고 소각장 및 중양제어실, 반입장, 크레인실, 음식물 등을 현지 시찰한 후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남동정수사업소는 미추홀침출물 생산과정과 단수대비 비상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미추홀침출물 생산공장시설과 물 홍보관, 침전지, 여과지를 현지 시찰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 공급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는 물론 지상에서의 안전소홀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향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월미은하레일 임시시험운행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2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월미은하레일 임시 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우레탄 안내료에서 고무타이어 안내료로 교체 후 안전성 점검을 위해 월미공원역을 방문했다.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 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비목에 대하여 25%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공무원 수당 절감 등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절감내용은 >국내여비 중 타시도의회 비교 시찰 경비 30% 감액(8백40만원), 국외여비 해외출장 및 우호도시 교류행사(1천7백97만원), 의정운영공동경비 중 회의비 등 20% 감액(7천68만원)이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6일(목) 15시 ‘인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부에서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월 17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인천시에

서도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박소희 고문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4 AG 위해 ‘젊음이 달린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발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서포터즈. 그들의 지난달 활약상을 소개한다. 한편 서포터즈 2기 활동은 현재 중반부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6월부터 3기 20개국 4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14 AG 홍보위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뛰다

2012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 지난달 1일 시민 2만명이 문학경기장으로 발길을 모았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120명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들 서포터즈는 현수막과 응원 깃발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펼치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부탄팀과 카타르팀은 각 나라에서 직접 공수한 전통의상을 입고 경기에 참가해 시민과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만팀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인 야구, 수영, 양궁, 태권도를 접목시킨 플래시몹을 행사장을 비롯한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에서 펼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대만팀의 플래시몹 동영상은 청년서포터즈 페이스북(www.facebook.com/ysupporter2014)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다

청년서포터즈 부탄팀이 지난달 14일 인천대학교에서 김해영 국제사회복지의 강연회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의 저자이기도 한 김씨는, 척추장애와 가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낙후된 나라를 돕는 국제사회복지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연회는 꿈과 희망으로 가난과 장애를 이겨낸 김씨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청년들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고 조언하고,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동을 전했다.



글. 방대건_동암경희한의원 원장

봄, 고양이처럼 계슴츠레 눈이 감기나요?

따사로운 날씨따라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봄철 피로증후군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몸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춘곤증’.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하품이 나오고 나른해지는 ‘식곤증’. 운동이나 일을 하고 난 후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노곤증’입니다. 봄이면 이들 피로 3인방이 한번에 몰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로증상은 일상생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또 대개의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피로증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피로증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의 한의학적인 명칭은 허로(虛勞), 노권(勞倦)이라 하여 인체의 원기가 부족해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를 지칭합니다. 즉 ‘일상적인 수면과 휴식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병적인 피로 상태’로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해당합니다.

한방에서는 체질과 병증에 따라 한약 처방, 침, 뜸 등의 한방치료를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로 예방 생활 수칙

- 1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 2 균형 잡힌 식사(아침 거르지 않기)
- 3 주 2~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 4 담배 피하고, 술과 커피 줄이기
- 5 스트레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생활정보

문화행사 주렁주렁 열렸네

울목도서관은 5월 어린이 및 가족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가족나들이 겸 해서 다녀오면 즐거운 시간이 될 듯 하다.

5월 문화행사

• 행사기간 : 5월 1일(목) ~ 31일(목)

• 행사내용

행사명	운영시간	장소	대상 및 정원
〈테마 전시〉 '옛 책의 향기 : 고전의 힘, 인생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5월 1일(화)~31일(목)	본관 1층 일반자료실	지역주민 누구나
〈헌책 전시 및 판매〉 배다리 헌책 북페어	5월 1일(화) ~13일(일) 오후 2시~5시	울목도서관 본관 앞 등나무	지역주민 누구나
〈OST 음악 라이브 공연〉 '옥상달빛 영화음악회'	5월 11일(금) 오후 7시~7시 30분	본관 3층 옥상	지역주민 누구나(60명)
〈팝콘 나눔 행사 및 영화 상영〉 옥상달빛 마을극장	5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가정의 달 맞이 특강〉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	5월 12일(토) 오전 10시~12시	본관 2층 소극장	지역주민 누구나(60명) (단, 13세 이하는 부모 동반 입장)
〈가정의 달 맞이 체험행사〉 '돌아라 바람개비! 날아라 우리나라!'	5월 19일(토) 오후 2시~4시	별관 2층 프로그램실 및 울목도서관 화단	5세 이상 어린이 20명
	5월 20일(일) 오후 2시~ 4시		5세 이상 어린이 20명

• 접수기간 : 4월 17일(화) ~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도서관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및 전화 신청

• 문의 : 770-3804

울목도서관 5월 인문학 강의

• 제목 :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 일시 : 5월 17일(목) 오후 7시~9시

• 주제 : 學(敎) “미래를 향한 아이들의 길 찾기”

• 강사: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 문의 : 770-3802

2012년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상반기과정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와 인천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및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2012년 인천시민 인문학강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강좌일정

날짜	강사	강의주제
5월 8일	차인배(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풍속화로 본 조선시대의 죄와 벌
5월 22일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한국의 옛 지도
6월 5일	노관범(한국고전번역원)	미디어와 한국학
6월 19일	한성우(인하대학교)	서울말과 경기도말, 그리고 현대문학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

인천환경공단은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전의식을 확산코자 2012년 '제5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을 연다. 관심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

작품주제

• 인천 지역의 하늘, 땅, 바다 등의 자연을 소재로 한 환경에 관한 주제

• 수질 · 대기 · 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 또는 생활환경 사진으로

환경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출품규격 : 11"×14"인치, 해상도 2,400×3,300, 25Mbyte 이상

공모기간 : 4월 12일~5월 31일(50일간)

당선작발표 : 6월 13일 ※ 시상식일정 별도 게시

응모대상 : 인천시민 및 인천소재 학교 재학생 중 순수 아마추어

응모방법 : 이메일(ecol2007@hanmai.net) 및 방문 · 우편 접수

문의 : 899-0199

가족사랑 동요경연대회

부평구문화재단은 동요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부평 어린이들에게 꿈과 밝고 깨끗한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가족사랑 동요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대회명 : 제 8 회 가족사랑동요경연대회

경연일시 : 5월 19일(토), 오후 3시

경연장소 : 부평문화사랑방 소극장

참가자격 : 부평구 관내 모든가족이면 참가가능

가창형식 : 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신청접수 : 4월 16일 ~ 5월 14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양식 : 방문, 인터넷(bpcl.or.kr)다운로드

문의 : 505-599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종합서비스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대상 : 중학교 1~2학년

운영기간 : 1년 사업

운영시간 : 월~금 16시~20시 30분,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

교과학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개별속제지도, 독서활동
주중체험과정	방송댄스, 모듬북, 영어연극/뮤지컬, 우쿨렐레, 창의력미술
주말체험과정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 자원봉사활동, 예술문화체험
생활지원과정	급식 · 간식지원, 귀가차량지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장학사업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문의 : 777~7942

인천 관광사진 공모전

인천시는 관내 수려한 자연 경관과 문화 · 역사명소 및 축제 · 먹거리 · 레저 등 관광과 사진 예술의 접목으로 우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제4회 인천 관광사진 공모전을 연다.

공모명칭 : 제4회 인천 관광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 10월 29일(월) ~ 11월 5일(월)

공모내용 : 인천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촬영한 국내 · 외 미 발표작 (4개월 촬영 권장)

접수방법

• 오프라인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마감일자 소인유효)

– 규격 : 컬러, 11"×14"(슬라이드 또는 디지털, 테두리가 없을 것)

– 필름사진작품 : 칼라사진 1매, 사진원본 슬라이드필름(동봉 접수)
(1000만화소 이상, 해상도 250, 3500×2750 픽셀 이상 사진파일 CD)

• 온라인 : 제4회 인천 관광사진 공모전 웹하드에 업로드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공지참조)

– 규격 : 컬러, 11"×14" 디지털 및 스마트폰 사진작품

(해상도200, 1900×1500 픽셀이상)

– 작품 이면에 작가명, 작품명, 촬영일시 및 장소,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필히 명기하여 제출

공모자격 : 제한 없음(국내 · 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

제출유형 : 아날로그 인화 및 디지털 사진 모두 참여 가능(1인 5점이내)

※ 온 · 오프라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도만 제출

문의 : 864-4887, 440-4046

인천아트플랫폼 토요 창의 예술학교

인천아트플랫폼은 매주 토요일 ‘인천아트플랫폼 토요창의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토요창의예술학교’는 2012년 일선 초 · 중 · 고교에서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기간 : 5월 19일(토) ~7월 21일(토), 매주 토요일 총 10회

접수기간 : 5월 1일(화) 9시~6일(일) 18시(선착순)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참가비 : 무료

세부내용

구분	대상	정원	교육시간
똑딱똑딱 창의학교(Ⅰ)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30명	매주 토요일 12:00~15:00(180분)
똑딱똑딱 창의학교(Ⅱ)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청소년	30명	매주 토요일 12:00~15:00(180분)

문의 : 760-1008

마실거리 야외공연

서구청은 서구청후문 마실거리에서 ‘마실거리 야외공연’을 진행한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일자	공연명	소속(팀명)	주요 프로그램
5월 4일(금) 18:30~19:30	어린이날 특별선물 어린이 뮤지컬 「토끼와 자라」	꼬마세상	– 가족뮤지컬 ‘해님달님’, ‘피노키오’ 등 – 인형극, 가족뮤지컬, 마술공연 등
5월 11일(금) 18:30~19:30	JOY브라스밴드와 함께하는 「봄의 행진」	조이브라스 밴드	– 여의도 벚꽃축제 초청공연 – 부천 국제만화축제 초청공연
5월 18일(금) 18:30~19:30	해피바♥!라스 in VIVA!	VIVA 총창단	– KBS열린음악회 출연 – SBS스타킹 출연 – 오페라 갈라콘서트 – 찾아가는 음악회 등
5월 25일(금) 18:30~19:30	마실거리 LOVE 콘서트 한동준	한동준	– 너를 사랑해 – 사랑의 서약 – 그대가 이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6월 1월(금) 18:30~19:30	마실거리 LOVE 콘서트 마로니에 엄지애	마로니에	– 카테일 사랑 – KBS 열린음악회 출연 ‘마로니에프렌즈’
		엄지애	– SBS드라마 ost ‘101번째 프로포즈’ – 번지썬야요 – 희망 릴레이콘서트

※ 본 공연은 무료입니다.

●문의 : 560-4345

제44기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제 44기 여름학기 회원모집을 시작한다. 부담 없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무료특별기획강좌’와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특강, 2013년도 일부 개정되는 수학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무료강좌설명회를 마련했다.

강좌기간 : 6월 1일~8월 23일 (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 4월 30일~6월 2일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 영,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 : 765-0220, 0250, mchart.co.kr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강좌명 : 어린이 골프교실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레슨비 : 3개월 150,000원

일시 : 화, 목, 토(주3회) 08:00~21:00 사이 개별레슨

문의 : 765-0250

학부모 무료 강좌설명회

강좌명 : 스토리텔링 수학

강사 : 수학기초과학연구소 김만순

대상 :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수강료 : 무료(접수비:1,000원)

일시 : 6월 12일(화) 10:30~12:30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우리시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입주주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자치 역할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있다.

상담시간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3:00 ~ 18:00

장소 : 별도 공지

상담반 :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주택관리사,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상담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 제정 ·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분야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별 대표자, 입주민 등
- 신청기간 : 각 구별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 제출 및 팩스접수

문의 : 440-4734

5월 미추홀도서관 행사

미추홀도서관은 5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초록의 계절, 문화의 향기에 빠져보자.

미지의 세계, 동유럽으로의 여행

- 일시 : 5월 3(목) ~ 31(목), 매주 목요일 19:00 ~ 20:3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3층)
- 대상 : 전체
- 주제 : 동유럽의 정치, 사회, 예술, 문화 등의 분야별 전문가 강의

애들아, 숲에서 놀자

- 일시 : 5월 12일(토) 10:00 ~ 11:30
- 장소 : 남동문화공원
- 대상 : 초등1~2학년
- 내용 : 봄꽃 관찰, 나비와 벌 찾아보기, 생태보자기 놀이 등

이야기꾼의 책 공연

- 일시 : 5월 19일(토) 14:00 ~
 - 장소 : 미추홀도서관 강당(지하1층)
 - 내용 : 이야기꾼이 펼치는 신명나는 책 공연 ‘백만 번 산 고양이’, ‘노랑바다’
- 문 의** : 440-6662~5

학교 폭력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서구청소년지원센터는 5차 대단위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학교 폭력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부모들도 학교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일시 : 6월 2일(토) 10:00~12:00

장소 :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강사 : 최진성(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인천지부장)

대상 : 서구 지역 학부모 200명 내외

교육비 : 무료

내용 : 학교폭력의 유형별 이해, 학교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알아봄

접수 : 선착순, 사전 전화접수 필수(~ 5월 27일까지)

문의 : 584-1388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에 참가하세요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대상 : 인천지역 거주자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교육기간 : 2012년 매달 2회

교육시간 : 총 20시간(주5일 1회, 09:30~13:30)

교육인원 : 10~15명 내외

교육장소 : 인천여성복지관 104호

비용 : 무료

신청기간 및 방법 : 수시(전화, 방문)

신청서류 : 신청서(본 센터의 비치), 반명함 사진 1매

문의 : 440-6526~9

‘사람책’ 만나러 오세요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책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이자 만남의 시간에 가족여러분을 초대한다.

프로그램명 :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 사람책을 만나다

일시 : 5월 19일(토) 10:30~12:00

접수 : 5월 8일(화)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40가족
(어른+어린이 구성으로 총 80명)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어울림

관람료 : 무료

문의 : 505-0612~3, bpm1or.kr

어린이날 행사 「아이 좋아」개최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즐겁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 – 아이 좋아’를 개최한다.

행사일시 : 5월 12일

놀이마당	신나는 에어바운스, 비누방울놀이, 고리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제기, 호핑볼, 격파, 가족줄넘기, 도미노, 보드게임, 까름, 퍼즐, 바둑, 장기, 하노이위탑, 메르센 수 퍼즐 등
만들기 체험마당	풍선아트, 바람개비, 페이스페인팅, 타투, 손누들 비누, 핸드폰(열쇠)고리, 이지플레이, 초코릿, 리본공예 등(무료 또는 재료비는 1천원~5천원)
공연마당	어린이 뮤지컬(여티니)
이벤트마당	공연(풍물, 댄스, 노래), 레크리에이션, OX퀴즈, 가족보물찾기, 로봇이름 공모, 칭찬상장 등
나눔 마당	숨사탕, 팝콘, 슬러쉬 등 먹거리 체험과 어린이 벼룩시장
부대행사	축색사진 찍기, 캐릭터 인형, 가훈싸주기 등

문의 : 465-6828, insiseol.net

5월 축제 주요일정

축제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주요행사내용	행사문의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토) 11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원	어린이 인형극, 에어바운스, 전통놀이체험, 비누방울놀이, 고리던지기, 응급의료 및 119구조대체험 등	시 아동청소년과 440-2882
아이리브카네이션 어버이축제	5월 8일 10:30시	부평공원	전통혼례재현 중국초청공연팀, 실버예술경연대회, 평양예술단공연, 가족놀이마당 등	시 노인정책과 440-2813
화도진축제	5월 4일~5일	화도진공원	여영대장축성행렬, 제22회 구민의날 및 한미수료기념식, 동구주민노래자랑, 게릴라이벤트, 투명우산그리기 등	동구청 770-6102
배다리문화축전	5월 12~13일	우각로 스페이스빔 앞	배다리 포럼, 인디밴드 공연, 책나눔 행사 등	배다리문화 축전위원회 422-8630
황해도평산 소놀음굿 공연	5월 6일	화도진공원 내사마당	풍요와 다산의 기원 '황해도평산소놀음굿'공연	화도진공원 770-6102
청소년금융건강 마라톤대회	5월 20일 8:30분	문학경기장 동문경기장	마라톤, 10주년기념공개방송, 인천시민축제	833-8057
청소년가요제(예선)	5월 19일	인천청소년 수련관	솔로, 중창, 그룹사운드 예선	722-9151
2012인천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제	5월 13일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대	아시아 근로자 농구 · 풋살대회, 아시안마술, 다문화잡놀이, 아시아 전통공연, 장기자랑 사생대회 등	시 일자리정책과 440-4274
강화고인돌 축제	5월 5~6일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광장일원	고인돌아카데미, 석기 · 움집 제작교실, 원시인복장체험, 고인돌포토존, 고인돌올림픽, 벽화그리기, 은암자연사 유물전 등	강화군청 930-3623
에코그린바이크 (Eco Green Bike Festival)	5월 12일 9:00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원	인천송도밸리-1천원 참가 연수자전거퍼레이드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872-9000

인천-대만 타오위엔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참가자 모집

인천시 우호도시인 타이완 타오위엔현 청소년을 인천으로 초청하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한다. 중고생 청소년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 바란다.

행사개요

- 기간 : 6월 3일(일)~6월 7일(목) 4박5일
- 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
- 인원 : 30명
 - 대만 타오위엔현 청소년 대표단 16명(청소년14, 인솔2)
 - 인천시 청소년 14명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주요활동
 - 홈스테이 교류 : 인천 청소년과 1:1 짝을 맺어 인천가정에서 숙박
 - 인천학교견학 및 수업참관(타이완 학생)
 - 한국문화체험 : 택견, K-POP 댄스 체험
 - 인천시내 견학 : 월미도, 차이나타운, 인천시청예방

참가자 선발계획

- 참가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청소년(중3 ~ 고1)
- 선발인원 : 14명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타이완 학생 남녀 성비에 맞게 선발
 - 적극성과 사회성을 갖춘 자
 - 영어 또는 중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자
- 참가자 특전
 - 2013년 인천청소년 타이완 타오위엔현 방문시 우선선발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5월 6일(일)까지
- 문의 : 451-1751

5월 청소년 문화행사

동구청소년수련관은 5월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일시	시간	대상	접수	참가비
인천시 특화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철학이 있는 토론 아카데미>	5월 31일~9월 13일 매주 목요일(총16회)	9:30~12:30	성인	5월10일~ 선착순 접수	추후공지
	9월 26일~12월 19일 매주 수요일(총12회)	9:30~12:30	성인	9월 5일~ 선착순 접수	추후공지
독서기행(환경편)	사전수업~5월 26일(토) 독서기행~ 6월 9일(토)	추후공지	초등3학년 이상	5월 8 ~12일 (동구거주자)	20,000원
가족과학연극 <모두 모여 흰세상>	5월 9일(토)	11:00~13:00	어린이,청소년, 가족	4월24일~ 선착순 마감	무료
제 4회 동구수채화전 <그림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4월 27일~5월 4(금)	관람시간 09:00~18:00	지역주민	동구청소년수련관 3층 새솔소극장	무료

문의 : 777-7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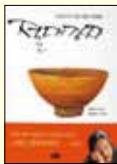
이달의 서평



인문학의 싹

김기승 | 인물과사상 | 2011

오늘날 우리가 인문학을 응용 또는 실생활에 더욱 쓸모 있게 이용하는데 앞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문학적 시각'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 책은 국토와 이념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토양에서 싹을 틔워 서구의 사상사 만큼이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가치를 뽐낸 우리 인문학의 성장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인문고전'이다.



절대강자

이외수 | 해냄 | 2011

이 책은 내 영혼 하나라도 환하게 밝히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 지침서가 되어준다. 세상에 대한 예리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외수 작가의 글 149편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해 온 우리 유물들의 혼을 담아낸 정태련 화백의 세밀화 37점이 담겨 있다. 오천 년을 제 모습 온전히 지켜온 이 나라의 유물들처럼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을 굳세게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로 절대강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밝힐 수 있도록 '존버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워준다.



가끔은 제정신

허태균 | 쌤앤파커스 | 2012

인간이 애초부터 착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착각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착각에 빠지는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지, 나아가 착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풍부한 사례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착각을 피할 수 없다면 좀더 행복한 착각에 빠지는 길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첫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김민영 | 청림출판 | 2011

이 책은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글쓰기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지 등 글쓰기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해준다. '글쓰기 입문', '서평 글쓰기' 등의 강좌로 인기를 모은 강사이자, 파워블로거인 저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파악한 글쓰기 초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설명한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줄 뿐 아니라, 글 쓰는 노하우까지 제시하여 자신이 생각한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인문학의 싹	김기승	인물과사상사	오늘의 한국 인문학을 있게 한 우리 인문고전 12선
문학과 철학의 향연	양운덕	문학과지성사	철학이 제기하는 문제와 고민을 문학을 통해 풀어나간다
가끔은 제정신	허태균	쌤앤파커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의 진실을 밝혀낸 심리서이다
중국을 고민하다	정재호	삼성경제연구소	한 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을 제시
인류사를 바꾼 100대 과학사건	이정임	학인사	인류의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친 100대 과학적 테마를 소개하는 책
아트도쿄	최재혁	북하우스	일본의 세계 예술을 이끈 작가와 작품을 만나보는 도쿄 미술관 기행
기나긴 하루	박완서	문학동네	박완서가 남긴 말년의 단편들과 대표작들
절대강자	이외수	해냄출판사	이외수의 인생 정면 대결법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김정운이 제안하는 존재학인의 문화 심리학
웃음	베르나르베르베르	열린책들	유머를 소재로 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미스터리 소설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김민영	청림출판	글쓰기 올림종을 해결해 줄 당신을 위한 글쓰기 레시피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알베르토 안젤라	까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유적과 유물로만 나와 있는 고대 로마를 생생하게 그려낸 책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김춘 석

시인. 1939년 인천시 화수동 출생. 연세대학교 문과 졸업. 1965년 <현대문학>에 시 <바다와 정부(情婦)> 《역류(逆流)》(65) 등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여섯시(六時)>의 동인이며, 대표작으로 《투게도(鬪鷄圖)》·《한밤쯤 깨어》·《산불》·《잠 안오는 밤》·《송어》 등이 있으며, 1971년 시집 《한밤쯤 깨어》를 출간했다.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 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가나물류시스템	콜센터 상담원	2명	경력 1년 이상	고졸이상	거래처 콜센터 상담업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92-8	연 1,320만원
건영글로벌텍	플라스틱압축성형조작원	2명	무관	고졸이상	플라스틱 이형압출기 조작 및 생상품 포장(2교대/주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8	월급 160만원
네이처스탠다드	소분포장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소분포장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시급 4580원
대영산전	품질관리사무원	2명	경력 3년 이상	대졸(2~3년)	품질관리, 상굴PPM,ISO 서류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로로 154번길	월급 150만원
대원산업	연마석 콤파운드 생산직	2명	무관	무관	도장제품 연마석 콤파운드 생산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1 124B-1L	시급 4580원
대호창고	3톤 지게차 무역사무원	각 2명	지게차:3년 경력:무관	고졸~대졸 (4년)	3톤 지게차 상하차 업무 무역사무업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1	지게차 :187만원 경력 :140만원
돈는햇살 우리마트	대형마트 캐셔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대형마트 진열 및 캐셔업무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30번길	월급 130만원
동일테크	CNC선반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CNC선반/경력자 및 초보자 모집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11-95	월급 150만원
세일인텍	자동차 생산직	4명	무관	무관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무 (GM대우 1차 협력업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0 52B-1L	시급 4850원
용주산업	파막기술자 및 신입사무원	5명	무관	무관	피막하기전 준비과정업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542-3	월급 170만원
(주)신일금속	전자부품 조립 생산직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휴대폰 내외장제 표면처리 및 전자부품 조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1-19	월급 120만원
(주)태성하이텍	PCB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원	2명	관계없음	고졸~대졸 (2~3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440-2	연 2300만원
(주)명일씨엔비	단순노무생산직	8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96번지	시급 4580원
(주)워터웨이플러스	아라뱃길 자전거대여소 관리원	4명	경력 1년 이상	학력무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계양역의 친수 편의시설 내 자전거 대여소관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월급 97만원
(주)풍년식품	기타 식품 가공 및 생산직	10명	신입	학력무관	양념육 생산직(포장 업무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0-8	월급 100만원
(주)화인씨키트	PCB제조 생산직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양.단면 인쇄회로기판 제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6-1	시급 4,580원
축복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요양보호사 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338	시급 6000원
큐빅텍-코리아	제조업 생산직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화장실 칸막이 제조, 재단, 접착, 포장 등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67-6	월급 140만원
프로에스콤	주차대행운전원	5명	운전 경력 1년이상	학력무관	인천공항 고객 주차대행업무, 인천관내 셔틀버스 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월급 125만원
현대식품	식품(면류, 떡류)생산직	5명	관계없음	중졸~고졸	면류(냉면,쫄면,칼국수) 및 떡류(떡국떡, 떡볶이)생산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1-2	시급 5,000원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음식물쓰레기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 만큼 비용을 내야 합니다

-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바다를 보호합니다

-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면금지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은 고농도의 폐수로서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낭비가 연간 약 20조에 달합니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실천수단입니다.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환경공단
Incheon Environmental Corporation

mev 환경부

경제청 453-7280, 중구 760-7790, 동구 770-6420, 남구 880-4390, 연수구 810-7310, 남동구 453-2570, 부평구 509-6820, 계양구 450-5450, 서구 560-4410, 강화군 930-3330, 옹진군 899-2620



장군님, 조심하세요

머리에 톱. 감히 장군님의 머리에 실례를 하면 안돼요.
양시호_남동구 소래역로



걱정 마세요. 놀이동산이랍니다!

"아나~ 아니됩니다!" 놀이동산에 놀러 간 기념으로 포토존에서 재미있게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김민희_남동구 남동대로



아, 맛있겠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 떡 '월병'도 길거리 음식입니다.
정현산_서울 강서구



한국 속 작은 중국으로~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차이나타운에 다녀왔는데, 마침 <굿모닝인천>에서 그곳을 소개 해주어 반가웠습니다. 책을 보며 아이와 '다음에 또 가자' 약속했습니다.
윤희영_남동구 갈재천로



인천항으로 골인!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외항선입니다. 파이프를 입에 문 마도로스가 보이는 듯 합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인천이 좋습니다.
장준수_부천시 소사구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봄꽃’ 닮은 인천 뷰티도시 되기

글. 장정욱_(사)서해문화 여성문화 위원장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유난히 화창한 날씨다. 파사로이 내리쬐는 햇살이 겨우내 움추렸던 중앙공원의 벚꽃과 목련을 붉이런 이름으로 화사하게 장식한다. 오늘도 출근하는 발걸음은 경쾌하다. 서해문화에서는 인천시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인천 뷰티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제를 순조롭게 수행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 뷰티산업 활성화 꽃바람이 불고 있다. 한류물결과 더불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이 항구도시 인천의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영향으로 우리 인천은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2년 전부터 뷰티도시를 표방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왔다. 뷰티산업을 통해 10만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개항장이다. 최초로 근대문물을 도입한 개항의 역사를 갖고 있음은 물론 패션과 미용산업에 있어서도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 이미 구도심화가 진행되었지만 예전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중구와 동구에 조성된 패션거리가 그것을 반증한다. 신평동 패션거리와 국제 재래시장, 애관극장 주변의 웨딩 및 한복거리, 경동 가구거리, 동구의 중앙시장 포목거리, 10~20대의 패션아이콘을 집약시킨 중앙지하상가, 신신예식장(지금은 없어졌지만)을 비롯한 많은 웨딩홀,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미용 관련 전문학교 등에서 패션 도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인천은 뷰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화장품 생산공장

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관련제품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같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 인천소계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화장품 공동판매장과 마케팅 지원 뷰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외 뷰티산업 박람회에도 인천기업의 진출을 돕는 영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이 뷰티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이기에 적극 환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천은 세계물류 2위 도시다. 또한 항만과 공항, 통신과 레저관광 관련 인프라가 두루 갖춰져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타도시가 대항할 수 없는 뷰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12년 봄, 아름다운 목련처럼 독창적인 문화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이 뷰티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며 활기찬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혁명가를 이끄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이런 자질이 없는 혁명가는 생각할 수 없다.

— 체 게바라, 사랑명언 —

“체 게바라” 정치인.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출생. 1967년 10월 9일 사망. 쿠바 공업장관, 국립은행 총재, 쿠바혁명 참가.



미안하다, 네가 지는 줄도 몰랐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미안하구나. 올해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너를 또 이렇게 보내는구나. 너는 일년 중 가장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내게 보냈는데 난,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구나. 기다리다 지쳐 하룻밤 사이에 낙화(落花)가 되어 거리의 밥풀때기 신세가 되다니.... 그런데 떨어진 게 어찌 너뿐이라. 지난 4월 한밤중에는 지역민들에게 알뜰한 맹세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그래도 내년 봄이면 넌 다시 내 곁에 돌아오겠지.

내년에는 네가 피면 같이 웃고 네가 지면 같이 울어주마. 꼭.

글 ·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